



기독일보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3호

“전도 과정을 통해 영혼의 귀함을 배웠다”

기감 전국 연회 중 남부연회, 전년도 대비 지난해 교인 숫자 증가 제일 커

지난 4월 동안 미주지역연회를 제외한 기독교대 한감리회(감동회장 이철 목사) 소속 11개 연회가 열린 가운데, 각 연회별 지난해 교세통계 보고 결과(삼남연회 제외) 남부연회(김동현 감독)가 전년도 대비 교인 숫자가 제일 많이 증가한 곳으로 알려졌다.

8-9일 양일간 대전 힐탑교회(호대선 목사)에서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를 주제로 열린 기감 제70회 남부연회에서 발표한 교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교인 수는 99,263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95,895명에서 3,368명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193,592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937명이 줄었다. 경기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123,125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1,463명이 줄었다. 중부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240,604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3,583명이 줄었다. 동부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83,546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415명이 늘었다. 중북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33,427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492명이 감소했다. 충청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79,557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370명이 줄었다. 중앙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83,311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324명이 늘었다. 서울연회는 지난해 총교인 수 138,928명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39명이 줄었다. 삼남연회는 교세통계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남부연회가 지난 3월 소속 157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Re-Jump Chuch’ 전도 컨퍼런스 탓이라고 분석한다.

남부연회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전도가 힘들어진 교회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전도 사상을 하고, 사례별 성장 모델을 발굴해 지속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효과적인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부연회 소속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특히 제70회 남부연회 폐회식날엔 승합차 10대, 월 150만원과 100만원씩 36개월 지원 등 전도를 잘한 교회 21곳을 선정해



제70회 남부연회 모습. ©당당뉴스 제공

시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수상 소감을 듣는 순서에서 신성교회 이수현 전도사가 간증하기도 했다. 시골목회를 하는 이 전도사는 이 교회로 부임했을 2021년 8월 당시 교인 숫자는 2명에 불과했고, 부여에서도 손

꼽하는 오지 신성리 마을은 복음화율이 1%에 불과했던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 70대 고령 집사와 전도를 함께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이 교회의 노인 새신자 30명이 등록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은 시골에도 계시고, 시골을 사랑하신다고 강

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도의 과정을 통해 영혼의 귀함을 배우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며 “전도는 사람이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발걸음을 인도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상자들도 다행복한교회 김영민 목사는 “첫 번째 세미나 당시 한 강사분은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영업으로 생각하면 실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전도는 성공이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는 다짐으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했다.

대전은혜교회 김성환 목사는 “가시딕함 같은 마음 받을 속도도 만들면 하나님의 씨는 능력이 있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며 “마음 받을 속도도 만들고자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했다”고 했다.

세종임마누엘 김영훈 목사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귀히 여겼던 것이 전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고신총회가 종합대인 고신대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가?”

서울포럼, 고신대 관련 제안… “학과 줄여 축소 운영 방안 모색해야”

예장 고신 측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포럼위원회(위원장 김진관 목사, 이하 서울포럼)가 종합대인 고신대를 총회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하고, 학과를 줄여 축소 운영할 길을 모색할 것 등을 교단에 제안했다.

서울포럼은 최근 ‘고신대학교에 대한 서울포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난 2월 남서울교회에서 열린 ‘고신총회와 고신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주제 제13회 서울포럼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신대 운영이 어려워지자 교단 내에선 이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고신대 신학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 양성’ 기조에서 벗어나 종합대학 하면서 애초 정체성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서울포럼의 이번 제안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포럼은 “출산률이 급감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 상당수는 존폐의 위기에 서 있다”며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고신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신총회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와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는

고신대학교가 고신총회가 설립한 학교임을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개혁에도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포럼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신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포럼을 개최하고 그 논의를 모아 고신교회 앞에 제안한다”며 아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고신총회가 종합대인 고신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개혁주의 원리에 합당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목회자 양성을 위해 고려학원을 설립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학과를 과감하게 줄여 축소 운영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고신대학교가 신급제도를 포기했기에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미션스쿨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방대학이라도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지도에 힘써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직시해 혹독한 구조조정과 재산처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김진영 기자

서울신대, 이사회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 경위 설명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가 최근 법인 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학내에 게시했다.

대학본부는 “박영식 교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신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신입생 유치를 위해 창조과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K박사를 강사로 임용하고 창조과학 관련 교과목을 대학원 과정에 개설했는데, 박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 칭하며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재해 졸업생 J박사와 온라인 상에서 논쟁을 벌였다”며 “2021년 J박사가 다시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을 비판하면서 2021년 총회 한 지방회 감찰회 목회자들이 박 교수의 저술과 논문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조사해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대학본부는 신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신학 정체성을 검토해 법인이사회에 보고했다”며 “법인이사회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박영식 교수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고 대면 질의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대학본부는 “박영식 교수는 2022년 6월 7일

신학적 고백과 반성이라는 자필 서명 문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 가운데 내용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해 ‘복음주의 신학과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전통과 고백들을 신학적으로 수용하고 해명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총장에게 상기 내용을 토대로 ‘성결교회 창조론 연구’ 논문을 작성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9월 박 교수는 ‘성결교회의 창조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논문을 작성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며 “비슷한 시기 SNS를 통해 그간의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향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이사회는 박 교수가 약속한 내용이 논문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학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을 검토한 결과,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와 별개로 2023년 8월 초 임명으로 박 교수의 목사 안수 과정 검증을 요청하는 문서도 교무처로 접수됐다”고 했다.

대학본부는 “박영식 교수에 대해 교단 및 외부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정체성 논란이 대학 건학 및 교육 이념과 복음주의 신학에 위배되며,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대학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해 법인이사회에 보고했다”며 “법인이사회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했다. 더불어 의



서울신학대학교 전경 ©서울신대

명으로 제기된 박영식 교수의 목사 안수 과정 절차 위배 문제도 교단에 검증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박영식 교수에게 약속한 대로 신학적 관점을 복음적, 포용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박 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 학회, 동거회, SNS 등을 동원해 대학과 법인 이사회를 비방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동료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은 마음 아픈 일이다.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신학적 정체성 문제로 불거진 갈등은 이제 대학본부 차원을 넘어섰다”며 “이사회 징계위원회를 앞둔 지금, 모든 절차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4중 초역세권 8천만원대 병원 분양 공고

* 전근대율 70% 가점, 실무자 기준

◆ 공급내역

- ▶ 공급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05-15, 31번지
- ▶ 대지면적 / 연면적: 1,770.80㎡ / 22,733.94㎡
- ▶ 공급규모: 지하5층 - 지상 18층 1개동
- ▶ 준공예정월 / 입주예정월: 2025년 04월 준공예정 / 2025년 07월 입주예정

◆ 청약 접수 방법

구분	내용
청약 접수금	1,000,000 원 (일백만원)
입금은행	신한은행
입금계좌	100-036-164642
입금방법	무통장입금 (청약 호실, 청약자이름) 예시] 601호 홍길동 or 601홍길동
주의사항	입금 후 반드시 대표번호로 호실 확정 문의 바랍니다.

◆ 청약 관련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은 호실별로 청약금 입금순으로 분양 마감 됩니다.
- 청약 가능 호실 및 구버서류는 대표번호로 확인 바랍니다.
- ▶ 청약금의 환불은 환불신청서,필요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 진행됩니다.

◆ 공급대상

층	분양구좌 (호실)	과목별 분양 면적	입점 과목
3층	3실 (호실 문외)	275.74㎡	이비인후과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71.77㎡	한의원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16.63㎡	치과 입점 예정
	6실 (호실 문외)	276.20㎡	안과 입점 예정
4층	3실 (호실 문외)	275.74㎡	소아청소년과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71.77㎡	정형외과 입점 예정
	4실 (호실 문외)	212.73㎡	기정외과 입점 예정
5층	7실 (호실 문외)	380.10㎡	재활의학과 입점 예정
	3실 (호실 문외)	275.74㎡	산부인과 입점 예정
	6실 (호실 문외)	421.88㎡	성형외과 입점 예정
6층	5실 (호실 문외)	316.86㎡	피부과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225.85㎡	비뇨기과 입점 예정
7층	19실 (6층 전체)	1,240.33㎡	웰니스 건강검진센터 입점 확정
7층	19실 (7층 전체)	1,240.33㎡	

* 상가입점 과목은 이력을 동기 위한 예시사항으로 실제 입점 업체(매출)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자 한정 혜택 (계약 시)

구분	내용
①	계약금 10% → 계약금 0원
②	준공시까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③	시세하락시 환매 보장 (안심보장증서 제공)

◆ 예상 수익률 (예시)

호실	514호	전용면적	7.74평
계약금	0원	청약접수자 혜택 적용시	
실투자금	80,587,582원	잔금 30% - (부가세+예상보증금)	
연임대수입	14,862,382원	인근 임대시세 X 7.74평	
실수익금	7,511,269원	연 임대수입 - 대출이자 (연3%가정)	
수익률	9.32% 실투자금 + 연간 실수익금		

* 본 수익률은 예상수익률로 계약시 개입사항도 및 대출기간, 대출이율, 금리상행태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호선 | 일곡관교 노선 (2023년 예정) | 동탄인덕원 노선 (2023년 예정) | GTX-C 노선 (2023년 예정)

인덕원 컴팩트시티 랜드마크 타워 최초분양! 4중역세권 인덕원역 초역세권 프리미엄!

청약문의 1877-9830

‘설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

개혁신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강단 개혁’ 주제로 열려

개혁신학회(회장 문병호)가 최근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 제1종합관 주기철기념홀에서 ‘강단 개혁’이라는 주제로 제40차 정기학술대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강연자로 나선 정성구 박사(前 총신대대신대 총장)는 ‘개혁주의 설교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설교학의 의의
정 박사는 “설교학은 모든 신학의 종합 세트다. 신학의 방향이 설교를 좌우하기에 바른 신학의 정립 없이는 성경적 설교는 불가능하다”며 “설교학은 일차적으로 신학 해석학과 함께 하고, 실천신학의 말행격이며 교의학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은 신학은 ‘어떠한지 설교는 자유로이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했다.

이어 “설교학은 실천신학(實踐神學)의 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발전되어진 것이다. 설교는 기독교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보다 교회는 바로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사는 바로 설교의 역사이며, 설교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설교(Sermon)와 설교하는 것(Preaching)과 설교학(Homiletics)은 서로 구분된다”며 “설교

(Sermon)는 라틴어 Sermo에서 나온 말로서, 담화나 연설 같은 뜻을 가지며, 근대적인 의미로 교회 예배의 중심이 되는 형식을 갖춘 연설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Preaching)은 설교하는 행위를 두고 쓰는 말이다. 헬라어 Κηρύσσω에 해당하는 이 말은 차라리 말씀의 신도 즉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힘 있는 증거를 가르친다”고 했다.

또한 “설교학(Homiletics)은 실천신학의 한 과목으로서 신학적 연구과목이다. 즉 그것은 기독교의 예배를 목적으로 모인 정규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고 교훈하는 근본원리와 신학적 정의를 세우고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러므로 교역자로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설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초자연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고백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거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교학의 과제와 미래
그는 “오늘날의 설교학의 과제는 먼저,



개혁신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참석자 기념 사진. ©개혁신학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만이 아니고 설교는 무엇이어야 하며 설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본래적인 물음을 하게 된다”며 “또한 둘째로 개혁주의 설교학의 수립에 있다. 개혁파 설교학의 요점은 성경적 설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설교라고 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Scriptura Sola)와 ‘하나님의 말씀 전부’(Scriptura Tota)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주의 설교가는 그의 메시지를 깨는데 있어서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초자연적인 영감과 성경적 계시의 특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자유주의자들의 경향은 설교자가 강단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의존하지 않는 듯한 사람을 완

속한 설교자로 인정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르게 설교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학문적 해석 못지않게 설교학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성경적 설교는 성경 전부(Scriptura Sola)를 증거해야 한다. 성경 전부를 설교한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둘 다 같은 기초 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더불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설교인데 그리스도와 교리의 요약으로서의 그의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수임자로서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설교”라며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구속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 뿐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게 관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적 설교 신학은 앞으로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칼빈주의와 설교
정 박사는 “칼빈주의자들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안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인간은 예배 때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어떤 예배도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항상 참된 설교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윤리, 사회개혁, 문자적 비평 등의 설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칼빈주의 입장에 설교이론 중 중요한 두 가지는 예정론(Predetermination)과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라며 “예정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이교도의 운명론과 동일시하고 예정론에 대한 성경 계시의 영역을 벗어

나 신인동형 사상에 빠지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교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교자 하는 사랑과 선택된 사람들의 받고자하는 사랑과 연결된 것”이라며 “이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실이 16세기의 칼빈주의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가 바로 설교이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신앙이 그의 설교를 강령하고 불꽃이 튀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전해야 한다”며 “듣는 귀나 회중의 마음은 아무런 노력이나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16세기 칼빈주의자들은 설교하였다”고 했다.

또한 “칼빈은 그의 성경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항상 강조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설교자의 임무는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하는 데 있으므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칼빈의 설교 가운데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성경적 설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이다. 설교란 단순히 교리 전달이나 윤리적 교훈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전달의 방법에는 설교의 방법과 성례(聖禮典)이 있는데, 설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전적 은혜 선포
이어진 분과별 발표에서 문병호 박사(총신대 조직신학)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설교에 개진된 언약신학적 그리스도 이해: 교리, 주해, 선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문 박사는 “갈라디아서의 근본 교리적

맥락이 ‘이신칭의’라면 그 주제어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것”이라며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권위는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이시며 교사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먼저 그가 설교자의 심령을 가르칠 만하게 하고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먼저 자신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의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실제 즉, 언약의 실제이시라는 것, 그가 율법의 실제이자 성취이시라는 것,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오직 믿음으로써 성도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자유롭게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했다.

또한 “이는 칼빈의 언약신학적 그리스도 이해의 본질적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며 “동일한 경향이 칼빈의 다른 신약 설교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언약신학적으로 다룸에 이러한 특성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혁 언약신학을 규정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했다.

그는 “설교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며 “설교로서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는 언제나 현존하신다. 율법의 실제로서 그 완성으로서의 복음의 실제로서 현존하신다. 구약과 신약의 실제로서 비록 옛 경륜과 새 경륜이 구별되지만 구속사적으로 현존하신다”며 “그러므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칼빈의 성경해석이 역사적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적 혹은 지혜적 의미(디다카헤)와 선포적 혹은 선언적 의미(케리그마)를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러므로 교리 주해 설교가 모두 말씀의 말씀이며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따른 것이라면 그 말씀을 전함 이 영구적인 법 일 것인바, 설교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동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인터네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유리 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한가협, 법무부 산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서 마약중독예방 교육 실시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약사)는 법무부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마약중독 예방지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탁받고 최근 나흘간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주관하고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교육하며 자격증을 발급하는 본 과정은 줌(ZOOM)으로 진행된다. 수료한 강사들은 학교, 보호 관찰소 등 마약예방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바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이번 과정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강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매 수업시간마다 전문적인 교육 내용과 이를 심화학습하는 차시별 과제, 그리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마약예방전문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강의 실습 과정 등이 세부적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의 개념 △마약류의 법적 분류 △마약의 부작용과 금단 구별하기 등 마약 관련 용어 △마약의 약물동역학적 특징



한가협 주최로 '마약없는 대한민국 2차 대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던 모습. ©한가협

(pharmacokinetics) △마약 독성학(toxicology) △마약 중독의 메커니즘 스펙타닐,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 개별 마약류의 특징 △산화질소, 먼지제거용 스프레이, 부탄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중독성 물질 △기타 의료 관련법에 의해 관리되는 중독성 물질 △네덜란드, 독일, 캘리포니아 등 해외 사례로 보는 대마초 합법화의 문제점과 현실 △마약 합법화 4단계 및 대처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표현 △마약 예방 교육 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안내 △마약 예방교육 시 주의해야 할 워딩 등 주요한 마약 예방 교육 노하우가 교육됐

다.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예방 교육을 받은 아이는 마약을 접해도 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마약에 쉽게 빠지게 된다. 마약 중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라며 “이를 위해선 마약예방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마약에 대해 배우고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바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새벽예배·마룻바닥 영성 통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인터뷰] 광주 청사교회 담임 백운영 목사

광주 청사교회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의 영광을 누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통합예배, '가정예배, '살롬교육의 3가지 실천사항, '한 사람 세우는 교회, '가정 세우는 교회, '학교 세우는 교회, '교회 세우는 교회, '지역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다.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백운영 목사는 21세기 문명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확신한다. 백 목사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며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품어 주는 목회를 기쁨으로 하고 있다.

백 목사를 만나 목회를 하게 된 계기, 청사교회, 마룻바닥영성, 교회 비전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어린 시절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국회의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4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기쁨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꿈을 펼치게 되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 서울에서 교육 목사로 섬기면서 철저히 목회자의 수업을 받았다. 목회자 수업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전국에 소개하는 일을 했으며 통합신앙캠프, 부모학교, 교사 학교 등을 섬겼다.”

Q. 청사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사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세대 통합목회, 마룻바닥영성, 신앙특성화학교인 살롬스쿨 운영, 선교비즈니스모델 선교기업 운영이 우리 교회 사역의 큰 축이다. 특히 선조들의 5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5대 신앙은 주일성수, 새벽기도, 삼일조 헌금, 교회 사랑, 주의 종 존중신앙이다. 매일 새벽예배에 주일

학교 학생 70여 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장년들도 동일하게 참석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보면 주일학교 시스템을 두고 9시 주일학교 예배, 오후 2시 청년예배, 노년예배, 전통예배 등의 형태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교회를 보면 세대가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원래 동양은 통합했던 민족이고 한국은 3대가 함께 사는 민족인데 교회에서 세대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세대 통합목회를 하게 되었다.

마룻바닥 영성은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부흥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를 보면 마룻바닥이 나오는데 이는 마룻바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던 어머니, 어머니가 키웠던 자녀들이 마룻바닥을 기어서 키웠고 교회에 나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부흥의 역사에 중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마룻바닥을 잊고 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목이 앞뒤로 반동하는데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 문화다. 새벽예배, 새벽기도, 마룻바닥 영성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청사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부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선조들의 5대 신앙(주일성수, 새벽기도, 삼일조 헌금, 교회 사랑, 주의 종 존중신앙)을 찾고 다음세대에 전수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예배, 가정회복에 집중하고 있는데 새벽예배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벽예배 및 기도회에 항상 7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새벽예배를 잘 드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Q. 청사교회에 ‘마룻바닥영성체험스테이’라는



광주청사교회 담임 백운영 목사가 강단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청사교회, ‘마룻바닥영성체험스테이’ 진행… 문준경 전도사 순례길 걷기도 대안학교인 ‘살롬스쿨’, 바른 신앙과 인격·탁월한 재능 갖춘 지도자 양성 목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마룻바닥영성체험스테이’는 불교의 템플스테이, 가톨릭의 소울스테이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템플스테이, 소울스테이는 고행이지만, 처치스테이는 잔칫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즐기는 것이다. 스테이의 기본은 잘 먹고 잘 자내는 것이다. 아울러 신앙의 뿌리를 찾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 일정 가운데 문준경 전도사 순례길을 걷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영육이 쉬는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정 충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룻바닥영성체험스테이’의 핵심이다. 이 스테이에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5명인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신현균, 박용묵의 이름을 딴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광산구 우산동은 광주지역 최초의 교회인 영

계교회가 있었던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Q. 청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롬스쿨은 신앙특성화학교이다. 학생들에게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 연마하는 대안학교다.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으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유아, 초등스쿨에서는 재능을 관찰하고, 중등스쿨에서는 재능을 분류하여 학문탐구반, 예능탐구반, 혁신 탐구반 등으로 반 평성을 하고 있다. 고등스쿨에서는 재능을 연마한다.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자녀와 부모가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 출석 서약을 해야 입학이 되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전국에서 광주로 이사를 오는 학교가 되



백운영 목사와 성도들이 마룻바닥 영성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었다. 살롬스쿨은 전국적으로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Q. 청사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세대통합목회, 마룻바닥영성 전수, 살롬스쿨 설립, 선교기업 설립 등을 ‘뿌리깊은나무국제목회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성경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이었다.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읽을 수 있다.

청사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세우는데 쏟기 원하며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사사시대를 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역사의 전환기가 왔다. 그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가 원하며 그 일을 위해 가정, 학교, 교회, 지역을 세우며 우리의 물질, 생명, 주신 것 모두를 드려 그 일을 하길 소망한다.”

Q.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세대통합목회, 마룻바닥영성 그리고 살롬스쿨이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교회 안에서 노년,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마룻바닥영성을 통해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고 잘 유지되길 소망한다. 아울러 살롬스쿨을 통해 다음세대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길 소망한다.”
최승연 기자

‘JMS 2인자’ 정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받아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가 교주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밖에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명석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수행비서 2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조은 씨에 대해 “피해자를 관리해 오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서 범행을 저

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 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의 경우 정명석 씨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 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조은 등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황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

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형구 기자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훽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Sanctuary for the senses
BANYAN TREE
HAUNDÆ BUSAN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웹 검색 최다 '하나님에 관한 질문' 7가지는?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로빈 슈마허(Robin Schumacher) 박사가 쓴 '하나님에 관해 가장 많이 검색되는 7가지 질문'이 최근 크리스토프스트(CTP)에 소개됐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당신과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2. 아무것도 아니면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다. 3. 따라서 필요하고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없는 한, 그 "필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른다."
 역사를 통틀어 사상가들은 네 가지 기본 가능성을 생각해 냈다. 첫째, 현실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일종의 매트릭스(Matrix)와 같다. 문제는 그 환상 뒤에는 반드시 현실과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명제는 제외된다.
 두 번째는 현실은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이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보다 선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론은 분석적으로 거짓이다.
 그럼 영원한 우주나 영원한 창조주가 남게 된다. 그리고 과학의 모든 단서는 우주에 시작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원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입장이 남는다.
#2 - 하나님은 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회의론자들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말했듯이 그것은 결합이 있는 생각이다. "나에게 있어 악의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저 악한 신이 있다고 말하면 더 작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악은 하나님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과 악이 둘 다 실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고 인정하셨다. 그분은 아셔야 한다. 그분은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그분을 역사상 최악의 형태의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중 일부는 영원히 답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3 - 성경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성경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책들이 쓰였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이를 맹렬히 비난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관찰했듯이 성경은 모든 말치를 달게 만드는 모루(anvil, 금속을 두들겨 단조할 때 밑에 받치는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만한"(reliable)이라는 용어를 "의존할 수 있는"(dependable)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성경에 의존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4 -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여(출 3:14) 그분의 신성함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주장하셨다(출 3:14).
 하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요한복음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관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빌 2:6)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히 1:8)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맞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을 가장 잘 기록한 책에 따르면 하나님이시다.
#5 -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 14).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직접 찾아오서 말씀하셨다. "...누

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분께 손을 내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6 -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가?
 이 질문이 기독교가 교회를 단단히 통제된 컨트리클럽 형태의 시설로,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그러나 이 질문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교리가 성경이 선포하는 것과 모순될 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친다는 데 대한 불평이라면 그 말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2+2에 대한 답이 매우 한정적인 것처럼, 삶과 구원의 큰 질문에 대한 답도 궁극적으로 단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4)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7 -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 이유는 무언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시간 + 물질 + 우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는 우주가 의미나 희망이 없는,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존재만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대신에, 우리는 의미와 목적에 집착하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와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나 평안으로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고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유진 김 기자

순복음영산신학원, 홀리랜드대와 학술교류 협약 체결

교수·학생 교류 확대, 연합 기도회, 교환수업 등 계획



순복음영산신학원 장혜경 총장(오른쪽)과 홀리랜드대학교 정연호 부총장(왼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복음영산신학원

순복음영산신학원(총장 장혜경)과 홀리랜드대학교(총장 스테판 J. 판 박사)가 12일 연구·교육·선교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학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발전 시키는데 헌신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이날 협약에 따라 상호 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을 전 세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리더가 되도록 준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교수들이 학문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 교회가 온 인류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수 및 학생 교환, 방문 교수 기회 제공,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공동연구 회의와 세미나 개최, 도서관 협력, 학생모집 및 입학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홀리랜드대학교는 1987년 개교해 신학과 일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신학교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2011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학교에 입학하며 목회자 양성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M.Div, M.A, Th.D, Ph.D, IBLT 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미국 학생 100여 명이 수학과 있다. 또한 서울신대, 아산대, 햇빛트리네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연호 부총장(홀리

는 것을 꿈꾸며 이어 걸맞는 세계의 신학교들과의 교류도 확대해 가고 있다.
 더불어 2024년 신입생으로 유명대학교 교수, 영어 1타 강사, 동시통역사 등 초교과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입학하며 세계화에 발맞춘 전문인 사역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장혜경 총장은 "홀리랜드대학교와 교수 및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영적학문적으로 서로 섬기며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및 연합 기도회와 교환수업도 계획하고 있다. 진정한 연합사역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열매 맺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히 "이번 5월부터 이스라엘 선교 사임과 현지인들이 순복음영산신학원의 사이버 목회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수강 신청한 선교사님들께 제가 대학 시절 전도했던 분이었고, 이스라엘에 순복음영산신학원의 사이버 수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물려 이스라엘 홀리랜드대학교와 MOU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계획하신에 놀랐고 그저 감사 할 따름"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이스라엘에는 성령운동의 확산과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많은 신학교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복음영산신학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나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불을 옮기는 영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영산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기장 전국장로회연합회, 한신대에 신학생 전액 장학금 기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가 최근 서울 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문형률)가 신학생 전액 장학금 7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국장로회연합회의 문형률 회장, 차인기 차기회장, 노준복 총무, 노선희 회회록 서기, 강길수 회회록 부서기, 이만수 회계, 신한국 부회계, 한희창 장학위원회 위원장, 오병문 장학위원회 총무, 김문겸 장학위원회 회계가, 한신대에서는 전철 신학대학원장, 이서영 교학부장, 대외협력센터 박병룡 목사, 임중

서울캠퍼스 행정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문형률 회장은 "역사의 고비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한신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한신대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희창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한신대학교에 신학생 전액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겨 모든 학생이 수혜자가 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학생 1명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전액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 간담회에서 한희



전국장로회연합회 장학금 전달식 및 간담회 기념사진. ©한신대

창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목회자 양성을 위해 학생을 선발하고 유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전철 원장과 이서영 교학부장은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장지동 기자

KB금융그룹 | **증권사 PB** |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한 명쯤은

알면 **좋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길까?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누구나 전화나 특으로 똑똑!

투자할 땐 꼭! **개비증권**

PRIME 센터
무로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종목당 0.015%/외국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종목당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연정 개성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증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중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중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증권

“복음통일 위해 쓰임 받길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사랑의교회, 1,001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개최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본당에서 1,001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행사는 이기원 목사(사랑의교회 봉사 DP)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북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공연 [한반도의 메시지 공연에 이어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어 박동찬 목사(413 한복기 준비위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가 환영사 및 개회선언을 했다.

이어 이윤기 목사(사랑의교회 대학부 팀장)가 대표 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천신예, 최시영 학생(사랑의교회 북한사랑의선교부 주일학교)이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출애굽기 19:4-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오늘 통일구국기도회가 1,001회를 맞이했다. 1,001회까지 크신 은혜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피 흘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복음적이라는 말은 통일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통일은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도구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만 계시의 종교이다. 기독교만 주님이 찾아오셨으므로 통일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인 복음통일을 소망하며 은혜를 주시길 바라야 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가 여기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제사장은 자기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산다. 당시 백성들은 제사장을 따라야 했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했다.

오 목사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의교회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본당에서 1,001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은 자기만이 죄인인 줄 알고,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인줄로 알고 겸손하지 못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선지자를 세우셨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곳임을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며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다. 과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으며 한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 통일의 길을 회복하며 중요한 역적 방향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전

심으로 할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는 하나의 증거라고 믿으시길 바란다. 유교 문화 중심이었던 우리 역사에서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육 기관이 세워졌다. 당시 세워진 기관이 이화학당, 숭실대학교 등이었는데 이 기관들이 근대 교육의 효시가 되었으며 기독교가 근대 교육의 효시가 된 것”이라며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가치, 자유시장 경제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다. 성경이 번역되기 전 한국에 들어올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런데 참 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국 기독교가 민족에게 심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우리는 남북이 분열되어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최승연 기자

거의 선택됨, 감옥처럼 감히 되었었는데 기독교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로서 나아가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과 자유의 국제적 기준, 어떻게 보면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1001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통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지팡이가 있으며 이는 기도의 지팡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할 줄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수많은 부족함이 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맨손만 있다. 기도의 지팡이

를 들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때때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주시길”이라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가지겠다는 제사장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과 다르다. 마음의 소망감과 확신이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무장되고 충만해지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오 목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하는대로 통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길 소망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이 되며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선물이 될 줄로 확신한다. 우리 다 함께 복음통일을 맞이했을 때 같이 평양에 가서 통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이어 이병철 목사(주빌리 부사임위원장, 주향교회)가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현비파 목사(북기총 부회장, 할렐루야교회)가 ‘탈북민교회와 북한교회를 위하여, 임현석 목사(미주 주빌리 사무총장)가 ‘해외한인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오 목사는 “우리는 남북이 분열되어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연세에 큰 기적 이루소서”

제194회 연세조찬기도회 열려

제194회 연세조찬기도회가 최근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1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과학대학동창회 주관으로 열렸다.

최경자 목사(79 주생, 거룩한빛운정교회 협동)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선 강성화 전 여자총동문회장(79 아동)이 대표기도를 드렸고, 생활과학대학 김석경 학장(89 주생)이 성경을 봉독한 뒤, 84학번 동기회 합창단 ‘이글스 콰이어’가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기적의 동역자들’(요한복음 2: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준서 목사(전 교학부총장)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혼자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이 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행하지 않으셨다”며 “예수님의 기적 뒤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잔치의 일꾼들이 있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일꾼들과 함께 이루신 합작품이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 물론 창조와 같은 그런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셨지만 대부분은 우리 인간도 같이 일하게 하셨다”며 “사람들이 감당해



연세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조찬기도회



박준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연세조찬기도회

야 할 분량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합쳐져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잔치일 일꾼들의 일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불평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며 “가나의 혼인 잔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

리 연세에도 큰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알렌이 제중원을 시작했을 때, 에비슨이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했을 때, 언더우드가 조선에 기독교대학을 설립했을 때 그 누구도 연세가 오늘의 연세, 세계적인 의료원이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다.

박 목사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수많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신다”며 “우리를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는 기적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헌금 후 생활과학대학동창회 박신진 회장이 봉헌기도를 드렸다. 이후 합심기도에 들어가 △지구촌의 평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서은경 연세조찬기도회 부회장(67 학생)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남미우 권사(81 의생, 남포교회) △연세대와 국내 대학을 위해 서유진 부학생회장(22 실내건축)이 기도를 인도했다. 김진영 기자

지미션, 노숙인·독거노인에게 생필품 지원

사단법인 지미션 인터내셔널대표 박종관은 노숙인, 독거노인에게 생수, 휴지 등 총 4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생수, 휴지, 방한 마스크 등 생필품 약 6,000개는 협력 기관인 늘 사랑교회를 통해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배분되었다. 늘 사랑교회는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주 1회 이상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다서 생필품 전달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

다. 이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미션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협력 기관 관계자는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서 노숙인,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잠시나마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했다.

지미션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미션은 더 많은 교회와 협력하여 이



지미션은 노숙인, 독거노인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지미션

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도 더!

다되고 더된다

K패스-경기

지원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제외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한 없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
 - 19~39세 청년: 매달 교통비의 30% 환급
 - 40세 이상: 매달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은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6~18세 도민은 연24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참고)

신청방법 K-패스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패스(www.korea-pass.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2024년 5월 1일부터 사업시행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2024 국가기도회날, “세상을 밝히소서” 주제로 열린다

제73회 국가기도회날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서 개최

제 73회 국가기도회날이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Lift up the Word Light up the World”, “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삼하 22:29-31)라는 주제로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도회는 미국의 화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행정 관리,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전쟁 중인 나라들과 전쟁의

종식, 반성경적 가치관에 몰든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예정이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가주 한인교회들과 단체들의 국가 기도회 날 참석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또한 4월 28일(일) 주간을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전 교회에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마 강순영牧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서 내셔널 주회 측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각 도시에서 열리는 데 미국과 전세계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로 진행되며, 1부 예배는 국유권 목사(총현선교회)의 사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를 맡았다. 2부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유수연 사모(ABC교육구 교육위원), 이수호 목사(울림평장교회), 크리스틴 정(사우스랜드교회), 강순영 목사(JAMA),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회), 김재권 장로(미주성서화 이사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김철민 장로(CMF가정선교회), 안현숙 목사(CBS중



제 73회 국가기도회날이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11일 오전에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도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보기도참정), 감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 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등이 참여해 기도회, 최금옥 권사(남가주동성교회), 샘 도를 인도할 예정이다.

관련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으며,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기도회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험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험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SBC 총회 오찬 행사 특별 연사로 참석

ERLC 주최 ‘공공 영역 봉사’ 주제로 대화 예정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는 6월 11일 남침례회(SBC) 연차총회 기간에 열리는 오찬 행사에 특별 연사로 참석한다.

SBC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공공 영역에서의 봉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를 주제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진행된다.

ERLC 브렌트 레더우드 회장은 “펜스 전 부통령의 연설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신앙과 정책 입안의 교차점,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방식 등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레더우드 회장은 “펜스 전 부통령은 성격과 신앙에 기반한 신념을 견지해온 인물로, 이번 행사가 관련 주제를 탐구하기에 완벽한 기회”라며 “미국 최고위 관료 경험을 갖고 있어 전국 교회에서 논의 중인 이슈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2018년 SBC 총회에서 펜스 전 부통령의 연설이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재임 시절과 달리 공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대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CP

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더우드 회장은 “진정 우려스러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지역사회 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풍부한 대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흥은혜 기자

존 파이퍼 “카페인, 더 깊은 영적 문제 회피하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세 가지 요약 지침’ 제시

미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목회자 존 파이퍼가 카페인에 함유된 에너지 음료 등의 섭취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명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한 청취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카페인 음료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공부할 때 집중력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2-3일에 한 번씩 마시는 데, 이것이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염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하며 “카페인 문제는 더 큰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음료 등이 자신의 더 깊은 문제를 회피하고 숨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쓰이는 게 아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도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정말 도움이 되는지 ▲카페인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모호하게 하지 않는지 ▲사랑의 동기로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도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만



존 파이퍼 목사 ©기독일보DB

“밤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 자극제에 의지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며 “카페인 섭취 이면에서 자신의 더 깊은 문제가 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흥은혜 기자

미국 목회자들, 일반 대중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

하트포드대 연구소 조사 결과, 삶의 목적 의식 높고 관계 만족도 낮아

최근 하트포드 국제대학교 종교연구소가 발표한 ‘교인들에게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 목회 지도자들이 일반 대중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3년 가을, 40개 이상 교단 소속 1,677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11가지 건강 및 복지 지표를 0점에서 10점 사이 점수로 평가했다. 그 결과 목회자들은 ‘관계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 대중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삶의 목적 이해도’ 항목에서 목회자와 일반인 간 격차가 가장 컸다. 목회자들은 평균 8.6점을 얻어 일반인(6.8점)보다 1.8점이나 높았다. 전체 건강 종합 점수 또한 목회자가 0.7점 더 높게 나타

났다. 연구팀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전 보고서의 목회 불만족 수준과 대비해도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이후 휴가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계 만족도’에서는 일반인보다 0.1점 낮은 점수를 받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흥은혜 기자

제1회 센터메디컬그룹배 시니어 당구대회, 즐거운 반응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당구대회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참여한 40명이 넘는 시니어들은 적적했던 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며 기뻐했다. 중도에 떨어진 시니어들도 다른 이들의 대진을 구경하기 위해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끝까지 관람했다는 후문이다.

시니어만을 집중으로 케어하는 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에서 봄을 맞이하여 시니어들이 무료하지 않게 기획한

이 행사는 센터메디컬그룹 가입자가 아니어도 만 64세이상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기에 로컬의 많은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졌다.

1등은 삼성 TV, 2등은 고급 녹용홍삼, 3등과 4등은 마사지건으로 상품을 주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당구대회는 다시 한번 기획되어 시니어들을 찾아가게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많은 센터메디컬 그룹의 행사들이 준비 될 예정이다. 행사 및



시니어 당구대회를 기념하며. ©주최 측 제공
혜택 문의 (714-904-1701)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험)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책임보험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내부통제금에 상당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서 북한도 자유케 하실 것”

‘2024 미션 루마니아’ 환영 만찬 및 포럼 등 열려 북한 복음화와 평화통일 위한 양국 기독교 지도자들 우호 다져

북한 복음화와 남북한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사업가, 기관 대표, 교수 등이 한국에서 열린 ‘2024 미션 루마니아 (2024 Mission Romania)’를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선교에 대한 뜻을 모았다.

1947년 공산화된 루마니아는 1965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공산 독재 정권이 시작돼 1970~80년대 북한과 형제국으로서 긴밀한 교류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1989년 성탄절에 차우셰스쿠 부부가 처형되면서 정권의 박해와 탄압에서 벗어나게 된 루마니아교회는 지금까지도 공산 독재 정권으로부터 고난받는 북한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를 오랫동안 이어왔다. 32년째 루마니아에서 사역해 온 정홍기 목사 선교사 부부는 이러한 루마니아교회들과 16년간 북한선교를 준비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루마니아와 한국 양국에서 ‘루마니아를 통한 남북이 가까이’라는 표어로 ‘미션 루마니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왔다.

2019년에는 38명, 2022년에는 40여 명의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이 방한하여 한국교회와 교류했고, 올해는 45명의 루마니아와 몰도바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2024 미션 루마니아 팀은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산리기도원,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중앙교회, 제암리교회, 세계로교회 등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북한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을 방문하여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 복음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4월 2일에는 서울 컨벤션호텔 여의도에서 2024 미션 루마니아 환영 만찬 및 포럼을 열고, 북한선교라는 동일한 비전 아래 양국 교회의 우호를 다지고, 협력 관계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환영사를 전한 AFC선교회 이사장 윤두환 목사는 “루마니아 형제자매들이 한국까지 오셔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남북이 (힘을) 합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도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 귀국하신 다음 순교자의 영성으로 제2, 제3의 바울이 되면 좋겠다”고 축복했다.

정홍기 선교사는 루마니아에 첫 장로 교회를 개척하여 32년째 이어온 루마니아 사역을 소개하고, 미션 루마니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정 선교사는 “공산주의가 막 무너지고 난 다음,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우만 같이 입고 지도자들로 나왔다. 엘리트들, 책임자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변화되고 진전을 가지면 질서 있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10년 이상 전국을 다니며 루마니아 정치인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지도해가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루마니아 국가조찬기도회를 구성할 때 협력 사역을 했다. 지금은 그분들이 저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또한 “루마니아 사람들이 공산주의 삶을 알았으니 북한 선교사가 되면 이상적이라는 생각만 하고 30년이 흘렀는데, 2018년 루마니아 전국 교단 선교대회에서 정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북한선교를 초점으로 3일간 미션 루마니아 대회를 열게 되었고, 임현수 목사님을 초대했다”며 “루마니아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 미션 루마니아 팀이 한국에 왔다. 목회자, 교수, 사회 기관의 책임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여기도 와 계신다”라고 소개했다.

루마니아 콰루지주 나포카 필라델피아 순복음교회 기처 스타니시(Ghita Stanisi) 목사는 루마니아교회를 대표해 전한 방문 인사에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남과 북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1940년 몰도바가 (소련 영토가 되면서) 루마니아와 분리됐다. 그러나 교회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1990년 이후 자유롭게 몰도바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번에 몰도바 형제들과 루마니아 형제들이 같이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북한과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타니시 목사는 “저는 오순절교회에서 해외선교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기도 한데, 80명 정도의 교단 선교사가 주로 이슬람 국가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



미션 루마니아 환영 만찬 및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미션 루마니아 팀과 한국교회가 우호를 다지고 협력을 논의했다.

다”며 “(앞으로) 루마니아 성도들과 여러분이 같이 북한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란다”라며 양국 교회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현식 평택순복음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전한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아픔과 고통이 있고, 북한의 2,500만 형제자매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1천만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예수 한국과 자유 통일을 이룰 그날을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의 100만 크리스천과 목회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날이 속히 올 줄 믿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루마니아에도 번져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부쿠레슈티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이온 보케안(Ion Bocean) 목사는 이날 “50년 동안 공산주의 아래서 순복음교회를 섬겼던 아버지 파벨 보케안 목사님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조사받

고 감옥에 가고 핍박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다. 보케안 목사는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기도였다.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이 해 준 기도의 무기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루마니아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며 “루마니아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서 북한도 자유케 하실 줄 믿으며, 루마니아 형제들도 기도할 것이다. 같이 연합된 한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러진 포럼은 관악통일비전포럼 상임대표 남승호 교수의 사회로 김관능 인천 한나라교회 목사와 치프리안 게오르게 목사가 발제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인 김관능 목사는 “지난해 5월 탈북 목회자 중 처음으로 루마니아 땅을 방문했다”며 “루마니아는 다른 공산권 국가와 다르게 중앙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민중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났고, 개혁교회 목회자가 (개혁) 큰 역할을 한 것에서 인상을 받았다. 또 차우셰스쿠가 북한을 모방해 만든 건물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북한에도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자신의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다 체포돼 10년간 감옥생활을 한 일, 이후 강제복속 위기에 처했으나 감정일 사망과 함께 한국으로 극적으로 송환된 사연을 전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루마니아교회가 과거에 지나왔던 길을 지금 북한교회는 겪고 있다”며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훗날 전 세계 크리스천에게 간증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오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는데, 루마니아 교회가 더욱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온 보케안 목사의 후계 목사인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를 함께 섬기는 게오르게 목사는 “복음의 중심은 화해이고, 교회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화해를 이

를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공식 외교단체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단체로서 다양성, 금융, 평화, 사회 정의, 용서, 자유, 하나님의 주권 인정, 구속 등 8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화해되길 바란다. 그래서 남과 북이 연합하기 원하는 기도회를 하고,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문환 목사와 유튜브 ‘달빛라이브’를 운영하는 달빛마을, 슈퍼스타K 4 출신 박다빈 씨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 무대를 선사했다.

미션 루마니아 사역을 최근부터 돕고 있는 (새원하다 이은혜 대표는 “먼 나라이지만 형제 됨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루마니아교회)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루마니아에도 (남북)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면 좋겠고, 다음세대에도 이 정신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한국인 참석자 소개와 미션 루마니아 팀의 찬양, 디누 팝(Dinu Pop) 목사의 만찬 기도와 식사 교제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이자 조사분석실장인 김병로 교수,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이코스대학 김중인 총장, 통일전략아카데미 2대 원장 방성용 목사, 한국피츠메이커 대표 여삼열 목사 등도 참여했다.

미션 루마니아 팀 참가자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수준 높은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헌신, 통일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았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깊은 열망을 느껴면서 루마니아교회가 모든 방향에서 기도하고 함께할 방안을 찾았다”며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루마니아교회와 사회에 적용하고,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겠다”며 “루마니아도 공산주의 때 다뉴브 강을 건너 유고슬라비아로 탈출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탈북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유사한 경험을 한 민족 간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며, 이산 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비전과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보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인 목회자도 “서로 얼굴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북녘 땅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라며 “철옹성 같은 북녘땅이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언젠가 열리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길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를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美진보 기독교인들, '종교 민족주의' 비난하는 뉴헤이븐 선언문 발표

최근 예일 신학대학원 공공신학 및 정책센터 창립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독교인 성직자, 신학자, 학자 그룹이 소위 '종교적 민족주의'를 비난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4년 대선의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뉴헤이븐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자칭 '종교 지도자' 그룹은 진보적 대의를 전파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전통적 가치가 정치적으로 무기화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일 공공신학 및 공공정책 센터를 설립한 진보적 활동가인 윌리엄 J. 바버 2세

(William J. Barber II) 주교를 비롯한 서명자들은 "자금이 풍부하고 조직화된 정치 운동이 우리의 신앙 전통을 끌어들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소위 '전통적 가치'를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 도덕적 부흥을 위한 전국적 요구"의 공동 의장인 바버 2세 주교는 지난 2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는 최근 다큐멘터리 '신과 국가'에 등장하기도 했다.

선언문은 "종교적 민족주의를 고수하는 이들이 오로지 정치적 권력에 의해 동

기를 부여받고 도덕적 문제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외국인 종교적 민족주의는 많은 선의의 기독교인들을 설득하여 분열을 야기하는 좁은 범위의 문화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과 전통의 핵심인 실제 도덕적 문제는 무시하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민족주의에 맞서 효과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공공신학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겠다"고 다짐했다.

뉴헤이븐 선언문은 프레드릭 더글라스, 소저너 트루스, 윌리엄 로이드 게이슨, 아이다 벨 웰스버넷, 르베르디 C. 랜섬, 윌터 라우선부시, 프랜시스 퍼킨스, 하워드 서먼, 라인홀드 니버, 로사 파크스, 마틴 킹, 도로시 데이, 페니 루 해머, 제임스 립의 도덕적 전통을 따른다고 밝혔다.

뉴헤이븐 선언문을 작성한 선언자들은 예일 신학대학원 학생 그렉 스틸링, 어퍼밍 미니스트리 주교 아베트 플렌더, UUA(Unitarian Universalists Association) 회장 소피아 베탄쿠트 목사, 'The Irresistible Revolution'의 저자 세인 클레이븐 등이 있다.

이미경 기자



설교를 전하고 있는 윌리엄 바버 2세 주교. ©Greenleaf Christian Church DOC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평화' 기원해

국제사회 "이란 무모한 행동" 비난... 긴장 고조 가운데 기독교계 중재 나서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전면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현장의 모습. ©현지 영상 캡처

이란이 대규모 공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지난달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스라엘에 300기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가 이란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저명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평화를 촉구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민족

을 지지한다"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 힉스 목사 또한 "이것이 에스겔서의 예언과 관련된 사건일 수 있다"며 "휴거 이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니 무어 목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백 번의 기도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유엔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이란의

도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스라엘 당국은 대부분의 위협을 방어 시스템으로 무력화했다며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의 보복 시 더욱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평화 중재에 나서고 있다.

홍은혜 기자

英성인 55% "24주 이상 태아 낙태 금지 찬성"

영국 대중의 대다수는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법안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화이트스톤 인사이트(Whitestone Insight)가 2천11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5%는 낙태가 현재의 24주 한도를 넘어서도 불법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6%만이 현 상태를 바꾸는 것을 지지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낙태가 불법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57% 대 54%). 4분의 3 이상(71%)은 32주에서 34주 사이에 아기를 낙태한 여

성이 1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에 거의 찬성한다고 했거나 너무 짧다고 답했다.

'Right To Life' 영국 대변인인 캐서린 로빈슨은 "다이애나 존슨이 제안한 법의 극단적인 변화는 여성이 임신 9개월 동안 스스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의 범죄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한 아기가 출생 직전까지 성별 선택 목적을 포함해 어떤 이유로든 낙태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에서 이루어지는 말기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기의 수가 비극적으로 증가하고 더 많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 극단

적이고 급진적인 낙태법은 영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중이 이 법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의원들에게 존슨의 수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다수의 대중이 낙태에 대한 법적 기한을 낮추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만타 콤폰스의 과거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낙태 기간 제한은 1990년 극미숙아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28주에서 24주로 낮아지면서 마지막으로 변경되었다.

이미경 기자

美백악관 "중동서 확산 불필요... 네타냐후도 알아"

"이스라엘, 놀라운 방어 역량 입증... 피해 매우 적어"

미국 백악관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에서의 확산에 경계를 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중동에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동에서는 이란이 13일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공습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

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보복 차원으로,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관심과 우려가 쏠린다.

커비 보좌관은 "이스라엘은 지난밤 놀라운 방어 역량을 입증했다"라며 "그들 자신의 군사적 우위는 상당히 주목할 만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망) 거의 뚫기 어려웠고, 피해는 매우 적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명확했다. 우리는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라는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의 더 큰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며 "대통령은 외교적 측면에서 움직인다"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불러올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야크사 홍수 기습" 이후 대통령은 이 문제가 더 광범위한 지역적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김남영 기자

코카서스 교두보 '韓-조지아 EPA'... 상품 등 핵심 분야 협상 속도

정부가 조지아 측과 만나 경제동반자 협정(EPA) 체결을 위한 상품·서비스·디지털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회기간 협상이 이날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

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조지아에서 개최된 제1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디지털,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조지아 정부는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물류·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조지아 EP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조지아를 거점으로 코카서스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도 민도 활도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국힘, '전당대회' 치르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닥

중진 의원들 "원내대표 선출 후 비대위 구성... 전대 통해 새 지도부 꾸릴 것"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5일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도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당헌당규상 비대위 구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비대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비대위를 만들고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뽑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지금 전당대회를 치려면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해서 그 체제로 가도, 한두 달 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7월쯤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은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 대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돈봉투 파문 관련 피고인 첫 재판 열려... 모두 혐의 부인

윤관석 "공소기각 해야"... 경경 공방 예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지지모임에서 3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



지난 2021년 일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성만,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스시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변호인도 "윤관석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이번 사건과 기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괄범죄 관계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 가운데 유일한 22대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은 "의뢰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윤, 국정쇄신 천명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일 것"

16일 국무회의서 총선 반성·협치 의지 등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께 설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의 원인을 되돌

아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총선 민심에 대한 자성과 협치를 위한 노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짧은 입장 발표 후 별도의 정식 대국민 담화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등 '용산발 리스크'에 대한 성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쇄신 방안으로는 각계와의 소통 강화, 유연한 태도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은 국민 지지를 구하며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야권이 거대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협치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메시지를 계기로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 국무총리 인선 등 인적쇄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박용국 기자

일주일새 4.7%P 급락... 野 "정국 주도권 상실, 정부 견제론 고조" 분석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2.6%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5일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32.6%를 기록했다.

특히 12일 일간지지율은 28.2%까지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63.6%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7.8%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5.0%P) 등 전국에 걸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3%→55.7%), 중도(40.8%→37.1%), 진보(10.5%→8.2%)

계층 모두에서 지지가 크게 감소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따른 정부 견제론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간 정책 기반으로 지지율을 견인해온 동력도 정국 주도권 상실로 약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권의 특검 압박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불리한 국면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국 기자

이란 이스라엘 공습에 맞대응 임박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全面戰 가능성은 낮아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습에 이스라엘의 맞대응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사태 확산을 우려해 신중한 행보를 주문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

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부터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로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이란 측 설명이다.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아이언돔'이 이란 미사일 99%를 요격했지만, 백악관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의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주요 7개국(G7)은 공동 성명으로 이란을 규탄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 후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헤르초그 대통령 역시 "이란에 대응하되 전쟁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유엔 안보리도 이란-이스라엘 갈등을 주시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용국 기자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재개

4·10 총선이 끝나면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5일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문 전 사위 서모씨 또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고려 중이며,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신분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향공사 채용 사이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박용국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병원 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필수의료·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일방적 강행에 미래 없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나온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서울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휴식권, 직업선택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박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

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모자인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정근영씨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전문의 수련 후에도 한국 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 고유의 권리를 침해한 박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씨는 박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등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회의 7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구사항에는 필수의료 정책과 의대 정원 철폐,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나래 기자

서울 집값 3개월 만에 보합세 전환

3월 전국 주택가격 0.12% ↓ ... 하락폭 둔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 3월 보합세로 전환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0%를 기록하며 하락에서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0.10% 상승한 이후 12월 -0.07%, 1월 -0.12%, 2월 -0.09%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송파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은 상승했지만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가격도 0.12% 내려 전월 (-0.14%)보다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 (-0.11%)과 지방(-0.13%)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전세가격은 서울이 0.19%, 수도권 0.1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월세 가격 역시 서울이 0.15% 상승하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혼조세 속에서 교통·정주여건 양호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재연장 “국제유가·환율 급등에 선제 대응”

인상 억제 위한 조치... 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완달러 환율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4월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경유·암촉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재료 운송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란 공격 이후 제5차 중동전쟁 위기가 깊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연내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완달러 환

율도 1400원대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가중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국가채무가 GDP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유가·환급금 도입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엔화 가치 34년만에 최저... 153엔대 후반까지 추락

미·일 금리차 확대에 엔화 매도... 日당국 ‘환율개입’ 경계감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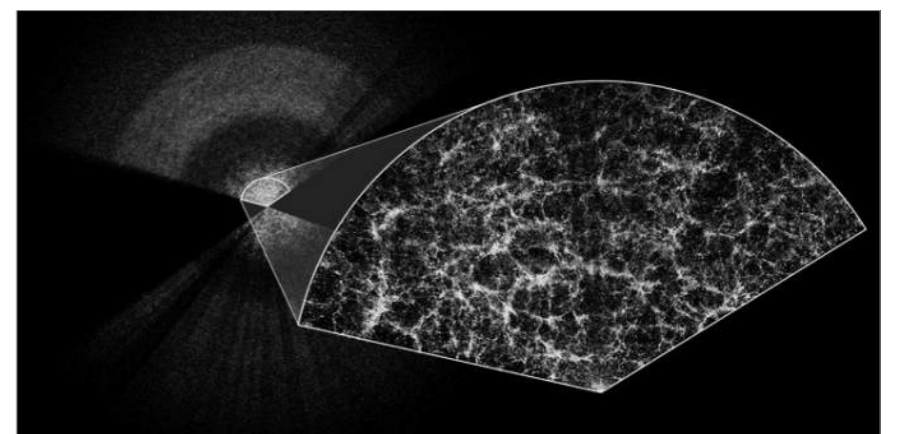
엔화 가치가 15일 오전 달러화 대비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153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153엔대 후반을 기록했다. 이는 199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견해가 퍼지면서 미·일 금리차가 벌어지자 엔화 매도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오전 11시23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3.67-153.68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엔 환율이 153엔을 넘어서며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스즈키 슈이치 재무상은 최근 “과도한 엔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세계 최대 규모 ‘3차원 우주 지도’ 공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우주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우주 지도’를 선보였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암흑에너지분광장비(DES)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로부터 최대 110억년 떨어진 은하와 퀘이사의 빛을 분석, 우주 팽창 역사를 0.5%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특히 우주 초기 80억~110억년 전 시기에 대해서는 1% 이내 오차로 정확히 측정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우주 초기 중입자 음향진동(BAO) 패턴을 활용해 7개 시기의 은하 및 퀘이사 분포 데이터를 분석, 우주 진화 역사를 3차원 지도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우주의 진화 양상은 현대 표준이론인 ‘차가운 암흑물질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DES 연구진이 만든 약 600만개의 은하와 퀘이사의 거리와 방향이 찍혀 있는 우주의 3차원 지도. 적경 190도, 적위 14도에 이르는 하늘의 좁은 부채꼴 모양의 관측 자료로서 우리 은하가 중심에 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DES가 관측한 적색이동해 해당한다. 이 중 적색이동된 약 27억 광년 안쪽의 모습을 확대한 큰 지도에는 중입자음향진동의 패턴인 여러 개의 공 모양이 선명히 보인다. ©DES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과 퀘이사를 포함한 대규모 우주 지도를 완성해 암흑에너지 본질 규명에 나선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삼성전자,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탈환

갤럭시S24 시리즈 인기로 20.8% 차지... 애플은 17.3%로 2위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되찾았다. 15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6010만대를 출하해 20.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5010만대(17.3%)로 2위에 그쳤다. IDC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프리미엄폰

강자로서 시장 회복을 이끌었다”며 “특히 갤럭시 S24 시리즈의 인기가 삼성전자 1위 등극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통상 신제품이 출시되는 1분기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올해에는 중국 제조사들의 공세에도 여유 있게 1위를 지켜냈다. 반면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아

이폰 판매 부진의 여파로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는 “삼성전자가 최근 더 강한 위치에 있다”며 “애플이 작년 말 1위를 차지했지만 삼성전자가 1분기 곧바로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외에는 샤오미(14.1%), 트랜지션(9.9%), 오포(8.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나래 기자

2024 녹색·에너지 대박

REVOTECH
REVOLUTIONARY TECHNOLOGY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REVOTECH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교회 파괴 위협 고조

미국의 종교 자유 옹호자들이 공화당 지도부에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러시아군에게 고문과 교회 파괴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윤리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의 전 회장인 리처드 랜드 박사를 비롯한 옹호자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려할 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목회자들을 강제로 해임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친 러시아가 아니며, 서방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은퇴한 참례교 목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위치한 멜리토폴 시에는 참례교 교회가 한곳도 남아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옹호자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자 완벽한 평화의 근원이다"라며 "귀하의 지도력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현지에서 머물렀던 스티븐 무어는 러시아군의 기독교인 학대가 "과소평가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무어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을 만나 러시아군의 박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의 구호 활동을 하던 중, 한때 복음주의의 목사로 섬기던 빅터라는 남성을 만났다고 전했다.

빅터는 무어에게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무력 충돌 중에 20일 이상 구금되었으며, 전기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이 복음주의자라는 이유로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자신에게 퇴마 의식을 벌였다고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정교회 건물. ©우크라이나 SSSCIP 트위터 캡처

말했다. 무어는 빅터를 통해 박해를 겪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의 또 다른 친구인 마크 세르게예프는 2022년 러시아군에 의해 폐쇄된 멜리토폴 기독교 교회(Melitopol Christian Church)의

청소년부 목회자이다. 세르게예프에 따르면, 같은 도시의 그레이스 침례교회(Grace Baptist Church) 신자들은 전투 군장을 한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예배를 방해받았으며, 이후 강제로 지문을 채취당했다. 작년 여름, 무어는 CP에 러시아 점령지

역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미국 의회 의원 및 공화당 여론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무어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사무실 약 100곳을 방문하여 러시아군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어는 "공화당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복음주의의 공화당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점령이 소비에트 연방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무어는 러시아군의 기독교인 박해가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점령지에서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꼽았다. 또한 그는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 같은 전문가 및 사회 평론가들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겪는 참상을 보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포스 뉴스 앵커인 칼슨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러시아 선전 홍보'를 확산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칼슨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무어는 우크라이나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의 이야기"라며 "칼슨을 비롯한 이들은 러시아인들이 점령지에서 수십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CP 칼럼니스트 헤디에 미라마디와 같은 몇몇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우크라이나 정교회(UOC) 소속 신부와 교구민 등 교회를 탄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젤렌스키 정부는 68명의 신부와 폐쇄된 수도원 원장 파벨 레베데 대주교 체포하는 등 정교회 지도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유진 김 기자

美기독교 지도자들 “가자지구 휴전·이스라엘 지원 중단” 촉구



가자지구 내에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140여 명 서한에 서명
“민간인 학살 우려”...

미국의 약 140명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영구적 휴전 및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비영리단체 '중동평화를 위한 교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이 서한에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지도자

들이 가세했다.

서명자들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다"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가자 어린이 15%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무기 지원 중단"과 "진행 중인 작전에 연루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잠재적 대량학살 방

지를 위해 힘쓰라"고 요청했다.

반면 50여 명의 이스라엘-미국 기독교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격퇴 노력을 지지한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즉각 휴전 강요 시적들이 담대해질 것"이라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파괴해 악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은혜 기자

나이지리아 나사라와주 풀라니족 공격으로 목사 등 6명 사망

기독교 마을 총격... 주민들 강제 이주 당해



나이지리아 중부 나사라와주에서 무슬림 풀라니족 목자들의 기독교인 마을 공격으로 1명의 목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풀라니족 무장세력은 최근 나사라와주 카다르코 지역의 기독교인 마을 체아베르 아레르를 공격해 김슬리 오르샤스 목사와 기독교인 1명을 살해했다.

이어 24일에는 같은 지역 내 기독교인 농부 4명을 추가로 살해하는 등 이틀간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의 주민도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으로 인해 기독교인 난민들이 수용소에서 강제 이주당하기도 했다. 카다르코 지역 지도자 데니스 우차는 "공격자들이 난민 수용소에 침입해 주민들

을 케아나 지방정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막화로 인한 토지 및 종교 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나이지리아는 2024년 기독교 박해국 6위 국가로, 최근 1년간 기독교인 4,118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3,300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박해 상황에 놓여 있다.
홍은혜 기자

“인도 기독교인 대상 폭력·조직적 박해 심각”

인도복음주의연합, 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발표... 전년 대비 45% 증가

인도복음주의연합(EFI)이 발표한 '종교 자유에 관한 최신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과 조직적 박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도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601건 발생해 전년도 413건에 비해 45% 급증했다. 특히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275건, 차티스가르주 132건 등 특정 지역에서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EFI 사무총장 비자예시 랄 목사는 "헌법적 보호와 오랜 종교다원성 전통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관에서 종교 소수자에 대한 분열적 수사와 선동이 이뤄지며 폭

력과 차별이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강제개종 의혹으로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는 등 실질적 증거 없이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거짓 개종 주장이 차별의 구실로 오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에서는 개종을 억제하는 엄격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힌두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EFI는 우타라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등



주요 박해 지역에서 긴급조치를 통해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법치를 지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은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할양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기신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유신 진화론 강의교수 징계와 교단 신학교 내의 학문 자유의 한계성



김명환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

2024년 3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백운주 이사장은 유신창조론을 강의한 박 교수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유는 박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동연, 2018)을 포함한 그의 창조신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진보진영의 학회들이 "만년 사냥"이라고 하면서 해당교수를 옹호하고 있으며 복음주의 학계 안에서는 "교단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기독교학술원에서 여러 해 창조론 포럼을 진행해온 학자로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한다.

1. 신학의 학문적 자유는 일반대학에서 허용될 수 있다.

독일 튀빙엔 대학에서 재직했던 한스 링 교수(1900-1978)가 교황의 무오설 부인 등 가톨릭 교리에 대하여 비판하는 강의를 했을 때 학교당국은 튀빙엔 가톨릭 신학부에서 링 교수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대학부에서 자유스럽게 강의하는 신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 신학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수가 가톨릭 전통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제약이 주어졌다. 링의 강의는 이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튀빙엔 대학 일반학부에서는 제약없이 종교에 대한 학문적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처럼 일반대학과 신학대학원의 차이가 있다. 일반대학에서는 진화론이나 유신진화론이나 창조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각 학자들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강의할 수 있다. 신학대학원은 그렇지 않다. 교단의 신앙고백 아래라는 제약이 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교단의 신앙고백에 위배된 강의는 교단과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 대학에서도 학문의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무신론 사상까지 비판적 여과없이 가르치게 된다면 교회적 내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신앙고백 위에 운영되는 교단 내에서는 교단의 정관에 맞추어야 한다.

기독교신학은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는 학문적 성찰로서 2천년 역사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역사적 전통의 기독교회는 성경 계시에 입각한 사도적 전승을 아레나우스 이래로 중시하여왔고, 성경에 합치하지 않는 영지주의 문서 및 오리겐의 보편화해론 등 비사도적 교리는 성경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제하였고 정통교리와 신앙을 지켜왔다. 역사적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합치한 것만을 가르치고 지켜왔기 때문에 2천년 기독교 역사는 중세교부, 종교개혁, 그리고 청교도들의 전통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교단같이 자기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성경교단의 신앙고백을 지켜서 강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학교법인과 교수와의 약속인 것이다. 교수들은 이 약속에 서명하고 그 교단의 교수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는 교단과의 약정(約定)을 지켜야 한다. 만일 교수가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유신 진화론은 전통적 창조론을 오늘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타협한 비성경적 이론이다.

유신 진화론 내지 진화적 창조론은 "생물학적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라는 신념 때문에 창세기를 진화론에 적극적으로 깬어 맞춘 타협이론이다. 전통적인 창조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시대정신에 대하여 만족한 설명을 하지 못하자 간격이론(Gap Theory, 재창조설), 점진적 창조론, 유신진화론, 다중계원론, 진화적 창조론 등 다양한 타협이론들이 나왔다.

타협이론들의 공통점은 지질시대대로 상징되는 오래된 지구연대를 주장하는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고, 성경(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기록된 내용들을 진화론에 깬어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진화와 백행(白行)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 진화론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들도, 성경적 창조론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류는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하등한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4. 유신 진화론은 창세기의 역사성 부인, 기독교의 원죄교리 등 기본 교리에 위배된다.

유신 진화론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본다. 유신 진화론에 의하면 현대 유전학에 따라서 오늘날 인류는 단지 아담과 하와 두 명에게서 유래될 수 없을 정

도로 너무나 다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물질의 과정에 의해 낮은 영장류에서 사람이 기원했다고 본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 수만명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하와를 아담의 아내가 되도록 창조된 여자라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라"(창 1:27).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서 지으심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당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창 2:20). 이 구절은 당시 지구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음을 단언한다.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자들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 외에 수만명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해석이다.

인류가 아담에게서 유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담이 하나님께 대항한 단 한번의 반역행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원죄 사상은 치명적으로 손상된다. 역사적 아담의 부인(否認)은 바울의 로마서에서 증언하는 바울의 원죄 교리에 명백히 배치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와 더불어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그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칭의론도 부인된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5. 유신 진화론은 비판적인 관점과 더불어 신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소개되어야 한다.

필자도 기독교 대학에서 현대신학을 강의해왔다. 교수는 현대신학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학흐름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거나 자기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보다는 비판적 견해와 더불어 학생들이 충분히 취사선택하도록 강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교단 신학교 강의실에서 유신 진화론을 마치 사실인양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계약위반이다. 그러므로 학교 재단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6.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이 아니라 신학

적 설명이다.

창조과학이 젊은 지구론을 말하는 것이 지구 역사 수십억년을 말하는 오랜 지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창세기의 하루를 오늘날 2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태양이 생기기전 사건이라 하여 유사(類似) 과학 내지 사이비 과학으로 매도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필자는 창조과학자들과 함께 여러 해 세미나를 개최해보았다. 한국 창조과학자들은 권위있는 해외 유명대학에서 과학의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권위자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예전에는 창조론을 비판하고 진화론에 심취했는데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지구와 자연질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창조를 증명하고자 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증거로서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사이비 과학자로 매도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7. 학문의 자유는 일반 대학의 영역에서 보장되나 교단 신학교 테두리 안에서 절제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에 대하여 당시 천주교가 이를 제재한 중세와 같지 않다. 학교법인은 대체로 학자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단지 학문의 자유아래 신앙고백이

훼손되는 것을 제재하는 책임감이 학교 경영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 신대에 일어난 징계 사건은 마녀사냥이나 종교재판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학교법인과 교수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이해하면 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위반할 때 처벌이 따르는 것이다. 해당교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징계에 대하여 성숙의 기회로 받기 바란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면 된다. 또는 자기가 뜻을 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 본인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폭이 넓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날 개방된 자유사회의 모습이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할지라도 절대적 자유는 어느기관에 서도 없다. 학문의 자유는 양심과 양사의 제약 속에서 누려져야 한다고 본다.

8. 오늘날 기독교교단 신학교는 신학적 정체성을 지켜서 탈 진리 시대에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목회자를 양성 사명을 다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와 구미의 기독교가 전통에서 탈피하여 세속주의를 비판적으로 방어하기 보다는 이에 침잠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서구 및 미국의 신학교의 학생수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신학의 자유주의화 여파로 신앙의 세속화에 따라서 교인수가 감소되고 신학

생수도 감소되었다.

이에 대한 살례로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가 회자되고 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는 1940년대 나치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독일로 떠나는 디트리히 본헤퍼를 교수로 불렀다고 했을 때 라인홀드 니버와 리처드 니버 등 저명한 복음주의(기독교현실주의)적 신학자들에 의하여 학문적 명성을 떨쳤다. 그 후에 과격한 성경비평학, 해방신학 등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면서 미국교회학 약해지고 신학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천년대 들어와 그 반세기 이전의 명성이 빛을 상실하고 무명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의 소위 말형이라는 신학대학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복음주의적 열정의 교수를 동성애 반대하는 교수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희롱 강의했다"는 누명을 씌어 해임 조치하면서 오랜 전통에 불명예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입학지원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서 성경교단 서울신학대학교는 학교법인이 교단의 성경적 진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가 미달 사태를 맞을 때 이 학교만은 학생들이 차고 넘쳤다. 이 사실은 그만큼 교단의 정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신학교가 초기의 창립 정신을 지켜주기를 소망해본다.

부활의 증인들



성준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을 죄로 생각합니다. 음행, 추행, 방탕, 상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당파심,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거짓, 교만, 무정함, 배신, 무자비함, 패라, 탐심, 동성애, 살인 등입니다 (갈 5:19-21, 롬 1:30-31).

그러나 시대에 따라 이런 분명한 죄들도 죄로 여기지 않는 더 큰 죄의 상태, 양심이 화인(火人)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곡된 자기 정의와 진리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롬 1:32).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과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회개는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심판의 한가운데, 유기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 3:18).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죄에 대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받은 새사람 (엡 4:24)입니다. 예수 부활은 새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목적 인생입니다. 소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 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전환치료와 회복치료



민성길 교수
연세의대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

역사적으로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의학 적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었다. 20세기에 이르러 고전적 전환치료(정신분석 또는 역동적 정신치 료), 혐오치료, 회복치료(역동적 방법과 인지행동 치료를 합친 것),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 이래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병이 아니 라고 선언하면서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말을 못 하게 하였다. 이런 사회적 압력에 대해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올바름"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미국심리학회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다양성, 평등, 인권, 차별반대 등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전환치료를 받을 권 리도 인권이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여, 여전히 동성 애 연구와 치료를 위한 전문학술단체와 개인 정 신치료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동 성애 연구와 치료를 위한 전국연맹"(NARTH, the National Alliance of Research and Therapy of Homosexuality)과 임상심리학회 전회장이자 the Kaiser-Permanent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정신건강분야 책임자였던 Nicholas Cummings 박사, 및 <http://www.voicesofchange.net/>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트 상

답가들, 그리고 다수 기독교 탈동성애 사역단체 들이 있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DSM-5)에는 이미 "동성애"는 빠져 있으나, Z-코 드라하여, 의료보험으로는 카바되지 않으나, 상 답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다. 즉 "성교 육, 성행위, 성지남, 성정체성, 성태도(당황 또는 소심), 기타 성에 관련된 행동, 성을 즐기, 기타 성 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원할 때," Z70.9 성 상담(sex counseling)이라는 항목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판에는 F66.1 자아이질적 성적 지향(동성애)이라는 병명 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이는 ICD-11에 근거하 여 조만간 개정될 수평관에서는 없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는 "QA15.1 성행동과 성적 지남 및 성적 대인관계에 관련된 상담"이라는 항목이 유지될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원하는 확인치 료(affirmation therapy)-동성애 행동을 지지하 고 격려하는 치료-는 결국 Z70.9 또는 QA15.1가 말하는 성상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환"치료라 해서 색다른 것이 아니다. 그냥 정신치료이다. 정신치료, 또는 상담치료란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이다. 전환치료는 개념적으로나 기법적으로 일반 정신치료 또는 상담과 다를 바 가 없다. 즉 우울증이나 불안을 정신치료할 때와 다르지 않다. 정신치료란 결국 "대화"인데, 잡담 이 아니라 "치료"라는 공동목적의 가진 대화"이다. 환자(내담자)가 말하는 문제를 정신치료자(상담 자)는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면 명료화하거나 직면시키거나 해석하거나 가이 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치료나 회복치료 또는 SAFE-T는 동성애자가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 할 때 시행하는 치료적 대화인 것이다.

"동성애"라는 말이 대화 주제로서 불편하다면, 그냥 삶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치료적 대화를 한 다고 보면 된다. 실제 동성애자들이 정신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처음부터 동성애를 주제로 삼기 보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치료를 원한 다고 말한다.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환자- 치료자 사이 신뢰감 내지 라포(rapport), 치료동 맹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 비로소 동성애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다고 고백한다.

전통적 또는 정통 정신분석적 치료는 기법상 "무의식적" 원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주 목 표는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 또는 억압하고 있던 문제를 통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전이 와 저항의 해석, 꿈의 해석 등이 있다. 치료자는 자신의 견해를 조언하거나 행동할 바를 지시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통찰에 이른 환자가 "이 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그게 무슨 의미 이냐?"라고 도로 묻는 식이다. 끝내 "비지시적"으 로 대화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런 전통적 비지시적 방식은 타협되고 있다. 전통적 분석방식을 불편 해 하는 환자에게는 방식을 다소 완화하여 정심 치료자가 향후 행동을 대해 다소간 암시할 수 있 다. 환자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그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라고 묻는 식이다. 이런 방식보다 더 지시적일 수도 있다. 환자가 "이 러 이라하게 해 보면 어떻까요?"하고 물을 때 "그 령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또는 단순히 "그 게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보다 더

지시적이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한 정신신료 기법은, 전통 적 정신분석적 치료에 기반한 "역동정신치료" (dynamic psychotherapy)라고 부른다. 지리적 역동치료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치료자는 환 자의 무의식을 이해한 상황에서, 현재의 행동을- 전환치료의 경우 전환노력을- 지지해 주는 것이 다.

어떤 순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 은 상황마다 다르다. 그러나 정신치료자가 어떤 수준의 해석을 하든 또는 어떤 수준의 지시를 하 든, 어떤 수준의 지지를 하든, 환자의 무의식에 대 한 온전한 해석 내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 다. 첫부분 해석이나 지시는 전체 치료과정을 망 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치료자-환자간 긴 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역동적 정신치료 기법에 인지행동 기법을 통합하기도 한다. (Dr. J. Nicolosi는 이를 회복치 료라 불렀다) 인지행동 기법은 인지심리학과 행 동(학습)이론을 통합한 것이다. 우선 인지치료는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가이드 하는 것이다. 행동치료는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 고 숙제를 주고 연습시키는 것이다. (혐오치료도 이에 해당된다)

이런 효과적인 모든 이론과 기법을 모두 통합 한 방식이 회복치료이다. 즉 무의식에 대한 분석 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가 깨닫도록 교육하고, 특정 행동을 숙제로 지시하여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흔히 eclectic- 절충하고 취 사선택하는 방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환치료라고 해서 색다른 특 수한 치료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심 치료자나 상담가도, 자신의 숙련된 일반적 정심

치료적 기술을 사용하여 동성애자를 도울 수 있 다.

현재 전환치료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의 압 박에 대응하여, 동성애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전 문가들은 전환치료를 "성지남 변화노력"(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 SOCE)이라 부른다. 치료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이다. 2016년에는 다시 SOCE를 "치료에서 성적 끌림 유동성 탐 구"(Sexual Attraction Fluidity Exploration in Therapy, SAFE-T)로 바꾸었다. 즉 동성애 옹호 학자들도 인정하는 성지남 유동성(fluidity, 성지 남이 저절로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워,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NARTH도 "치료적 선택과 과학적 통합을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rapeutic Choice and Scientific Integrity, ATCSI)으로 그 명칭을 바꾸 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동성애는 하나의 "신경증적" 행동(behavior)이며, 타고나는 상태 (condition)가 아니다. 동성애는 많은 부정적 결 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벗어나야 하는 행동이 또 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다. 그 방법으로는, 스 스로 노력할 수도 있고, 신앙으로 실천할 수도 있고, 정신치료(상담)이라는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탈 동성애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필자도 전환치료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러 나 동성애적 쾌락을 경험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하나의 "행위중독"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당 연히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초기에 벗어나기를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환치료를 받을 권리도 인권이다. (다음 칼럼은 탈동성애 사 역에 대한 것이다)

구원론: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2)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척교회 담임목사



2. 제자들

본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초막절이 다가왔습 니다. 유대의 3대 절기 중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 절은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뒤 광야에서 살던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거의 추수가 끝난 뒤에 백성들 은 일주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와 무화과 잎과 시 내 버들을 가지고 지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 냈습니다. 이런 초막절은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고생

담을 전해 줌으로서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과 실체를 교훈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 고 자란 아이와 제멋대로 자란 아이가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3개월이 남 은 때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자 주님은 예루살 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 행보를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듯이 예루살렘과 서울은 우리 땅의 수도이자 중심지이므로 시골에서 서울로 올 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라는 점도 생각 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 마지막 여행길에도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시골 촌뜨기인 제자들은 아마 마음이 들뜨고 소

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 난지 3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런 방문에는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이라 기대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독립선언을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 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 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 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 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 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뱀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만 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32-34)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다면 제자들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 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제자들 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예 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을 지를 다 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잘 보도하 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 서"(막 10:37)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 는 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릴 영화만 꿈꾸고 있습 니다. 이들의 이런 전력은 어찌 오늘의 일이 아니 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막 9:31). 그 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누가 크냐하 는 논쟁을 하였습니까(34절).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길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대화를 하 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다시 깨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소 개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 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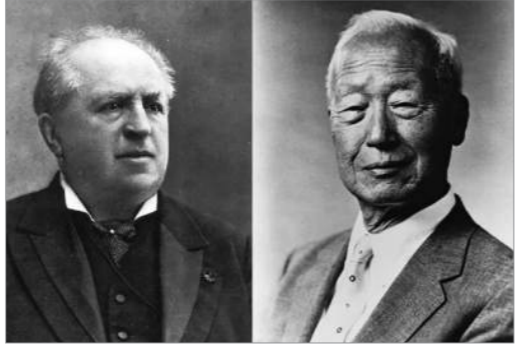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World Top K-water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카이퍼와 이승만(6)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네덜란드 전 수상이자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와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

멘토들

사람은 누구에게나 멘토가 있다. 때문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멘토들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익어간다. 그러나 젊은 날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 필자도 젊은 날에 철저한 칼빈주의 성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를 만나서 오늘의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학 중에 헤르만 도에베르트, 블렌호번, 요한네스 베르카일, 프란시스 슈뢰터라는 보석 같은 멘토들을 만나면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터를 닦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런 사건이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

아브라함 카이퍼(A. Kuiper)와 이승만이 살아온 공간과 시간은 반세기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둘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면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카이퍼의 경우는 25세에 라이덴 대학교 신학부에서 스폴텐(Scholten) 박사의 지도로 신학박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대의 스폴텐은 가장 잘 나가는 자유주의 학자였다. 이에 카이퍼도 그의 학문과 신학을 따르던 자유주의 신앙의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런 가운데 26세에 카이퍼는 목사 안수를 받고 '베이스트'라는 작은 시골교회에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비록 시골교회라 하지만 이미 300년의 역사를 가진 철저한 개혁교회로서 16세기 칼빈의 정통신앙을 지키는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 카이퍼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곁돌기

시작했고, 그중에 발투스(Baltus)라는 여성도는 카이퍼의 설교에 늘 싸늘했고 비판적이었다.

카이퍼 목사는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연구자였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연구>라는 우수한 논문을 썼다. 그러나 당시 카이퍼는 학문적으로 칼빈을 연구했을 뿐, 칼빈주의 사상에 대해 아직은 둔감한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는 여성도 발투스가 카이퍼 목사를 만나 용기 있는 충고의 말을 던졌다.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종교 개혁자 칼빈의 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칼빈주의 사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충정이 가득한 이 여인의 충고에 카이퍼는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자유주의 사상이 산산이 깨어짐으로써 19세기의 위대한 칼빈주의 운동가로 거듭났다. 이처럼 멘토는 학문과 인격이 높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준비된 한 인격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평신도의 용기 있는 그녀의 말에 카이퍼는 자유주의 노선을 버리고 철저한 칼빈주의 기수가 되었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 갔다.

그 후 카이퍼 박사는 30세에 우트레흐트(Utrecht) 교회에서 '교육 개혁 세미나'의 대연설에서 위대한 칼빈주의 교육 정책을 발표하던 중,

전임 수상인 흐룬 반 프린스터를 만났고, 그 노정객은 카이퍼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카이퍼의 멘토가 된다. 이 사건으로 카이퍼는 "하나님 나라 건설은 '신학의 개혁', '교육의 개혁', '정치 개혁'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카이퍼에게는 두 명의 멘토가 있다. 한 분은 요한 칼빈이요, 다른 한 분은 흐룬 반 프린스터였다. 이 두 분으로 인해 카이퍼는 정통 칼빈주의 사상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었고, 카이퍼는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뿐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등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메시지로 전국을 누비며 교회 개혁, 사회 개혁, 정치 개혁, 문화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승만은 카이퍼와 맞먹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몰락한 왕족 가문에 태어나 이조 왕국의 끝자락에 가장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는 유학의 전통과 불교의 전통에서 자랐으나 왕권개혁을 꿈꾸다 사형수 판결을 받고 비참한 종신수로 감옥에 있게 된다. 하지만 배재학당을 다니던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마다 모두가 문화강국이 되었고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가 그 고통스러운 한성감옥에 갇혔을 때, 선교사들이 면회를 때마다 역사서, 기독교 신앙 서적, 서양 서적들을 가져왔었는데 이승만은 그 모든 책을 정독했다.

이때 이승만을 도와준 선교사들이 한두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중에 제임스 게이일(James Gale) 선교사가 이승만의 실질적인 멘토였다. 제임스 게이일 박사는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YMCA 파송 선교사로 1888년 12월 15일 한국에 왔었다. 그는 어학에 뛰어난 학자인 데다 한국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다.

또한 게이일 박사는 성서번역 회 의원으로 문헌 연구에 밝았던 그는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줌으로써 이승만의 실질적인 멘토가 되었다. 그렇게 이승만은 감옥에서 중생의 체험을 얻었고, 훗날 그가 '자유민주주의 사상' '기독교 입국론'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게이일 박사라는 위대한 멘토의 후원과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신학교(Seminary)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게이일 박사는 명문 토론토 대학 출신으로 그가 보는 안목은 독특했다. 특히 이승만의 비상한 머리와 꿈을 잘 알고 있던 게이일 박사는 장차 이승만이 큰일을 할 인물로 진작 깨달았다. 이승만은 출옥 후 많은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받았지만, 헨린(Hemlin) 목사에게 써준 게이일 박사의 추천서로 인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워싱턴의 연약도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카이퍼도 이승만도 그들의 뒤에는 '위대하고 헌신적인 멘토'가 있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위대한 멘토가 있는가?

社說

북한역류 세 선교사, 어찌 잊으리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11년째 생환 소식이 없는 안타까운 마음과 한국교회가 이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차원이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 국적의 선교사는 김정욱·김국기·최준길 세 명이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준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각각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정욱 선교사 등 세 명의 선교사는 탈북민 등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이들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김국기·최준길 선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량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8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북한이 강제 억류 중인 국민을 잊지 않고 있으며, 무사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9월엔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다.

북한 당국이 온갖 죄명을 뒤집어씌워 외국인을 강제 억류한 사례는 세 선교사가 다가 아니다. 미국 국적의 한국계 여가자를 억류했다가 풀려준 적이 있고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는 지난 2015년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7년에 풀려났다.

미국인과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목사 등은 모두 풀려나 가족 품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인만 10년 넘게 억류돼 있다는 사실은 그간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통일부가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게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해결 의지를 따지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다.

가까운 문재인 정부만 봐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 정도로 북한에 우호적으로 기울었다. 북한 김정일은 동생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젊은 소대 가리"라고 욕해도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보면 이런 소릴 들어도 싸다. 문 대통령 재임 중 3차례나 남북정상 회담이 열렸고, 평양에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보는 앞에서 한국 가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순간에도 이들의 존재는 철저히 잊혀졌다. 대북 인권단체들이 문 대통령의 방북에 앞서 강제 억류된 국민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줄 것을 호소했으나 문 대통령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한복협도 성명에서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우선적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유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감각에 인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을 위한 역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북한 당국과의 협상을 비롯한 최선의 정책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세 선교사뿐 아니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구상의 어느 정부, 어떤 권력자도 자국민을 내팽개치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사 생환은 고사하고 최소한 생사확인조차 안 돼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등 가용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할 일도 중요하다. 한복협은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앞장서던 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역류 선교사 석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주 한 끼 이상 금식기도를 하고 △교회 주보에 선교사 억류 사실과 송환촉구기도 내용을 정기적으로 신고,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과 복음통일을 위한 특별예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한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1층 로비에 3명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억류 선교사님들의 석방과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오라는 문구와 함께 3명의 선교사에 대한 소개와 기도제목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세계교회 등 종교계를 통한 해결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갖게 된 민주당도 이 문제 만큼은 인간의 존엄성과 동포에 차원에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다. 한국교회마저 이들을 잊는다는 건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세 선교사의 간절한 소망을 꺾는 것임을 명심하자.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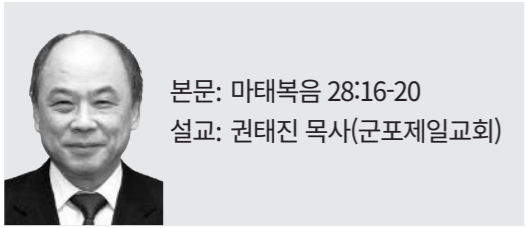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



본문: 마태복음 28:16-20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20a)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Matthew 28:18-20a)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드러지고 행복과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사람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각 사람의 실력과 직분에 따라 권세와 기능을 주십니다. 판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경찰은 도둑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교사는 가르치는 기능, 여자는 양태

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을 헤아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특권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하면 벌을 받지만 선용하면 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사장들은 특권을 악용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행9:1-2)

사울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권세를 선용할 수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복된 반열에 서길 바랍니다.

1.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마28:16)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활동한 곳이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이들입니다. 또 갈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마26:32)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마28:7)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시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마28:10)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현재 살아계신 모습에 당황한 것입니다.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발휘된 사건입니다. 구원의 신비한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졌어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신앙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조그만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는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이며, 불변의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변화와 땅의 변화, 영원을 좌우하고 자연계와 영계를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막16:17)

귀신의 지식이 분별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붙잡힌 자는 자신을 상실하고 상대의 약점만 잡고 부정, 부패, 음란, 살인, 잔인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행위를 저지르고도 남을 심판하려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권세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민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세는 투표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포장한 구별금지법,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독재를 막는 것이 시대 속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권세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지식, 환경, 지혜, 물

건, 직분으로 주신 권세를 선용하고 복음 전파, 구제, 선교, 성전건축, 복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날씨를 좌우했고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마음을 좌우했고 사드락, 메사, 아벳-네고의 기도는 풀무불의 온도를 좌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성전 미문에 얽은 뱀을 걷고 뛰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3:6)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복음을 전파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악령을 소멸하여 인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3. 권세를 주고 사명과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28:19)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구별하지 않고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보혜사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내재하여 동행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성령이 동행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계를 복음의 현장 삼아 전도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고 피해 당한 가족들의 마음 건강 돌본다

‘심리안정 서비스’ 무상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심리안정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심리안정 서비스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에 따른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2294개 가정에 심리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심리안정 서비스 일환으로 차 테라피, 컬러 테라피, 아로마테라피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이끄는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가족의 심리 회복을 도움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심리안정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피해가족의 마음건강 수준이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32.1%에서 서비스 지원 후 22.9%로 9.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프로그램 대상자의 41.3%(12명)는 마음건강 상태가 ‘위험’에서 ‘양호’ 또는 ‘주의’ 수준까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이외에도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운동 처방 영상 및 셀프 케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돕기 위한 운동처방 솔루션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공단은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재활과 생계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지속해 지난해까지 약 39만7000명에게 재활 보조금과 자녀 장학금 등 6592억원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중증후유장애인 방문케어서비스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자녀 멘토링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tvs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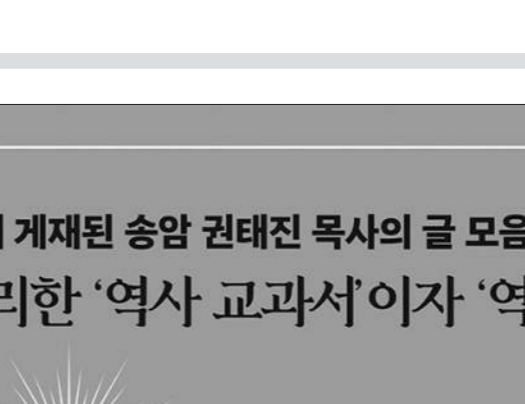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원가족의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부처에 지원금 인상을 요청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우리 기자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찌목이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찌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보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산문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 3:9절)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특별영성 집회가 있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특별영성 집회는 말씀 듣다가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집회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 같이 내가 밤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서 1장 2절)

특별 기도

1. 은혜를 사모하며 은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
2. 임지가 없어서 주일예배가 부담스러운 분
3. 교회 다니다가 쉬고있는 분
4. 교회나 기도를원 개척하고자 하는 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와보세요!
(산 속의 기도원같은 집회) ※ 반주자 구함

◆ 집회안내 :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
◆ 장소 : 주영광교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7) 연락처 : 010-6327-8297

◆ 찾아오시는 길 : 서정리역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거리(서정리 지구대 뒤) 송탄 신장 육교 4거리에서 2번 버스 승차 후 서정리역 하차 도보 3분 소요

영적찬양신유은사대성회

• 총회신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원 교회음악 석사과정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중앙위원
• 감서성결교회 음악목사 역임

특별 기도

- 손발이 찬 분
-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
- 성령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최바울 목사
백석총회 동남노회

핸드폰 : 010-3742-9191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풍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부모님께 효도는 삭개오우슬환으로

삭개오 우슬환은 무릎, 관절, 허리, 연골에 도움

남성-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우리집 4번 타자

당귀산수유환은 심장, 신장, 간, 기관지, 폐에 도움

삭개오와 뽕잎환은 중풍, 고혈압, 당뇨에 도움

※ 위 3가지 식품은 당귀산수유환은 약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건강장생기세요 기도합니다 조삭개오 목사 올림

삭개오와 뽕나무 건강기능식품
상담 및 부흥성회 문의 : 조삭개오 목사 010-9603-0691 간증집회 문의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교회복지연구원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불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익실(3층, 4층) 및 분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희망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인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양봉선교회 양봉무료교육

농어촌 목회자에게 무료 양봉 교육을 통해서 교회자립과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상 : 농촌.어촌.초교파 목회자

접수 : 24년 4월 30일 오후6시까지
010-8813-0191
>> 문자접수 << (지역.교회.목회자 성명)

인원 : 접수순 20교회(1교회 목회자 부부도 가능함)

설명회 : 24년 4월 30일 (화) 오후 1시

장소 : 대전총신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대덕구청 정문 앞)

수업일 : 5월 4일-7월 6일 (10회예정)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5:30

특전 : 교육비 전액 장학. 1차 교육 후 양봉관리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주관 : 한국양봉선교회

기타 : 전화 상담 사절함.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줌.

문의 : 042-633-8311. 010-8813-0191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흥의교회 담임목사
대전기독교부흥사회의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 역할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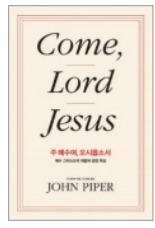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출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일스 스튜디오 운영기술
- 연무대학교 7000여 조명 리빙랩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교회/ 호산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환경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무엇이다
- 교역자가 알 필요, 건축원리가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시공자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당신은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나요?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만연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두 번째로 쓴 편지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다(벧후 3:9). 당시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성도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매우 더디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고, 만물이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것처럼 눈앞에 있는 하늘과 땅만 바라보며 온통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존 파이퍼는 다시 한번 교회가 말과 삶으로 외쳐야 할 고백,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같은 제목의 책을 썼다. 원서 제목은 <Come, Lord Jesus>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의 영어 번역본과 같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단지 이 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 곧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애정에 목표를 둔다"(9p). 즉, 이 책을 통하여 독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굳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묵상"이다. 하지만, 22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묵상을 임의로 섞어 놓은 책이 아니다. 기승전결을 갖추어 재림을 주제로 재림을 사모해야 할 이유, 재림의 시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한다.

종말론은 크게 인약주의와 세대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 오심에 관한 견해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결론적으로 존 파이퍼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차례의 재림만을 인정한다. 재림의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이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 세대 안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오시기 전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2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시기"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가졌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중간에 위치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재림의 시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존 파이퍼는 신약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속히", "곧" 오시겠다는 약속이 어제저수천 년이 지나도록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진실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하여 훌륭하게 설명했다. 또한 주님이 오시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들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이라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놀라워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혜를 소망하며, 흠 없는 상태로 주를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 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행한 대로 상을 얻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에 열광할 것을 요청한다. 저자를 통해 우리는 주 오심을 의무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바람처럼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애정으로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성경 본문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실 애정을 기대하게 된다).

말세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현세에 집착하게 만든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온갖 더러운 일, 정욕을 따르는 일에 몰두한다.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도 모양만 남고 능력은 잃는다(딤후 3장). '세상 말세'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시선이 더욱 현세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지금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영혼에 주 오심을 사모하게 만드는 영적 양식이 채워질 때,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된 당신이 그 성향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에서 시선이 옮겨져 당신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주가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 진정 속히 임하실 것이다. 반대로 그런 기대감 없이 잠자는 것처럼, 슬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에게, 주님은 다른 의미로 갑작스럽게 찾아오실 것이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겠는가? 이 책을 읽고 그 합당한 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인, 유행교회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은혜로운 복음과 구원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인 축복과 공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약간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참여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가 국가 권력에 저항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지향한 헌법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는 사회적이고 평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박훈 '복음과 헌법 & 사회참여'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한 줄의 시험은 내 인생과 사역을 한꺼번에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모세의 일터, 여호수아의 일터에 관해 자주 묵상한다. 선교적 영성에 관한 강의를 요청받을 때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을 전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의 말씀이다. 묘한 운운의 대화와 문자들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를 선교의 영역으로 선언하며, 특히 비즈니스를 선교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내게 세계관은 '각막'과 더 유사하게 보인다. 각막 두께는 0.6-0.8mm 정도의 아주 얇은 막이다. 외부의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켜 우리에게 외부의 사물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비즈니스 현장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보고 있노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고,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그저 자기 자신과 주변만 챙기는 라이프 스타일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다.

이다니엘 '복음, 시장 헌법판에 서다'



엄마는 신앙이 삶의 전부였고, 살아갈 이유였고,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 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엄마의 삶에 하나님 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엄마의 일기장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 분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 서로를 위해 중보했던 기도, 함께 읽고 나누는 했던 성경 묵상,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그리고 성경 필사와 통독이 가득 담겨있다. 고되고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는 삶의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교회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가득하다.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그리스도인인 내가, 목회자인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것 같았다. 내 신앙이 두근거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이화정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부부 관계 전문가에게 듣는 결혼 생활의 모든 것

신간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설렘이 사랑의 시작이었다면 감사와 배려를 사랑할 더 풍요롭게 한다. 신간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하는 부부들을 위해 오랜 시간 가족치료사(Family therapy)로 섬겨온 저자 김숙경 소장(김숙경상담연구소)은 그동안 상담하고 강의해 왔던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풀어내고 있다. 성경은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 (전 9:9)라고 분명히 말한다. 즉 가장 가치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즐거움을 잃고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성경의 원리와 저자의 현장 경험,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가 어우러진 이 책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지, 지금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부부는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관계다. 이런 치유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사랑으로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보고 어린 시절의 필요를 채워 줄 때, 배우자는 치유되고 성장한다. 배우자를 다 큰 성인으로 보지 말고 그 안의 내면 아이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 그 내면 아이가 치유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배우자가 되길 바란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인플루언서 탐구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급성장한 인플루언서 산업의 실태가 새 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출간된 '인플루언서 탐구(소소의책)'는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 가치가 있는 인플루언서 산업의 내부를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는 직접 10대 인플루언서 훈련캠프와 유명 인플루언서 파티, 촬영 현장 등을 찾아가며 인플루언서 실험을 벌였다.

책에는 인플루언서의 정의와 인기 배경, 인터넷 문화에서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과정, 미래 전망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개인 일상 공유, 톡아요와 구독자 경쟁 등 인플루언서



서 시대의 특징들이 유명 인플루언서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드러난다.

저자는 "디지털 영향력이 전통 명성을 무색케 하며,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산업의 핵심 유인"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2020년 당시 10대 소년 찰리 다멜리오의 틱톡 팔로워 수가 1년 만에 0명에서 1억 명으로 폭증한 사례도 소개된다.

이나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천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말씀 III

여러분!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확실히 맞다”는 유일한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게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

그리고 사악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동성애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린 이 성 학대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 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단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멀리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고전 6장 9-10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 하리라!”

신약에서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한 구절입니다.

주요 로빈슨이 뭐라 해도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기본 소식은 11절에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 가운데 이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

도 일부는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것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고 합니다. 커비 앤더슨은 도덕의 딜레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금기보다 절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같은 문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전 6장 9절에서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도 절제하면서 하면 된다는 겁니까? 술은 주말에는 괜찮고 매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조 절의 문제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혼 외에 어떠한 성관계도 금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 10대나 기혼자, 미혼자 등 누구나 결혼 외 어떠한 성관계를 한다면 오늘 아침 제가 설교하는 동성애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최종목적지는 지옥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지니 곧 주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를 거스르는 것 때문이니!”

법은 분명히 어떤 동성애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지하셨지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범죄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겠지요. 진리는 외모, 문화, 법, 유전자, 법원, 의사, 과학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교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Thus says the Lord”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님이 정하신 말씀에 인간이 의문을 달지 마십시오.

성공회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틀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도 같은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목사였다가 저번 주에 사예들에서 목회를 시작한 주례이 목사에게 전자우편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에서 게이를 수용할지 오늘 투표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침례교회입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지독히 악취 나는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독립 침례인입니다.

로빈슨은 그를 주교로 뽑은 사람과 함께 성공회의 치욕입니다. 행음을 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영적 지도자 또는 일반 지도자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의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로빈슨처럼 부인과 이혼하고 두 딸은 다른 남자에게 맡기고 성공회의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그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칼리 토마스는 로빈슨의 지지자들이 그를 성인이라고 하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것은 아마 한순간에 한한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동성애 전에 두 가지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부분의 상담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집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동적인 아빠와 너무 바빠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아버지입니다.

아빠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자녀를 위해서요.

사람들이 나 같은 목사는 호모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고 그게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호모가 무서워 죽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이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져 오면서 우리 사회가 죄로 물들까 염려됩니다. 미국이 USA가 US Gay가 될까 염려됩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런 게이 문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과 간음에 대해 반대 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좋은 대로 할 테니 너희도 하고 서로 반대하지 말자는 거죠. 문을 닫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을 닫아도 다 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공개적이든, 비밀이든 다 아십니다.

제가 정말로 호모 공포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무시무시한 영향이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갈까 두려워 서입니다. 저를 신경 과민하게 만들고 무

겁게 만듭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괜찮고 옳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무리들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교실에서 TV에서 선전하고 가르침을 받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 죽을 때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건 어른이건 동성애가 발견되면 즉시 퇴교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상기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어떠한 훌륭한 어머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애와 같은 범죄자보다 더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떠한 훌륭한 아버지도 영생에 관한 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애자와 같은 사악한 범죄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에게 회망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면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클 버드 칼버트 목사(페어팩스 baptist temple (Fairfax Baptist Temple) 교회) /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성령의 은혜를 누립시다

로마서 8:12-17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따를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 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삽니다(13절). 하나님 없이 살던 때에 우리는 모두가 예의 없이 몸의 행실(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며, 우리 각자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쪽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13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몸의 행실(죄의 본성)을 따르는 대신에 성령을 좇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 습니다(14절).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15절)”라고 부르 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인도해 주 습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친히 간 구해주십니다(26절).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 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 해야 할 것을 알지 못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 구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몸의 행실(죄의 본성)을 죽이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좇아 살아감으로 죄의 본성에서 떠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세계 제공



광동코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충량용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Kwangdong
제조 · 판매원 : 광동제약(주)

침향환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황의 진한 정성, 광동 쌍화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강지윤 칼럼 자녀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랑의 개념과 방식이 어떠한지 재인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지윤 박사

자녀를 통해 부모는 또 다른 세계와 우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세계, 또 다른 삶의 영역, 삶의 확장, 삶에 대처하는 양식 등이 새롭게 자신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지내노라면 잠깐

마주하는 식탁에서의 대화의 질이 자녀와 부모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하루 한 번 정도의 식탁에서의 만남은 가족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와의 대화의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하겠죠. 식탁에서의 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서 부모에 의해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강압적



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들에 의해서 식탁의 상처를 당하는 어린이들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픔을 풀어냅니다. 그 내용 중에는 때로 섬뜩한 공포심마저 갖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세 살인지 네 살인지... 그때쯤인 것 같아요. 물을 가지고 오다가 출렁거리서 조금 옆질렀어요. 그때 아빠가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때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때부터 제가 소심해진 것

같아요.” (15세 남자 아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더니 입술에서 피가 마구 흘렀어요. 밥을 좀 흘리며 먹었다고 우리 엄마가 큰 반지를 낀 손으로 제 입술을 세게 때렸죠. 반지에 긁혔는지, 제 입술이 찢어지고 저는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날 학교도 못갔어요.” (17세 여자 아이)

이처럼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되기도 하고, 자녀의 미래를 형클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수많은 자기요류적 행위들과 교만한 말들, 자녀들에 대한 횡포와 억압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자신의 관점으로만 자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지해야 합니다. 마음에 병이 든 자녀의 경우, 부모의 잘못된 평가와 학대에 가까운 억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모든 일그러진 자녀와의 관계를 바로 줍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한없이 너그럽고, 포용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송태훈 칼럼 여호수아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송태훈 목사

구약성경에는 ‘여호수아(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지닌 동명이인이 네 명 등장한다. 여기서 다루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에브라임 지파 사람 눈의 아들이다(민 13:8, 16).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세기적 인물이다. 모세는 그의 본명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했다(민 13:16). 사람 뜻대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최초로 드러난다. 모세는 성실한 무장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군으로 임명해 아말렉과 직접 싸우도록 했다.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와 아론 및 훌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그 때부터 여호수아는 수장 모세의 신실한 추종자(follower)가 돼 수족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모세의 명령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다른 10개 지

파의 족장들과는 달리 하나님 입장에서 신실한 정찰보고를 했다. 타 지파에 속한 족장들은 육안으로만 가나안을 관찰했고,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안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여호수아의 눈에 비치는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젓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므로 키가 큰 가나안 거민들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육안만을 지닌 10명의 대표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죽이려 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바른 주장을 하여 백성들을 설득했다. 각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 정탐 갔던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민 14:30,38).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딤에서 엘리아살 제사장과 회중 앞에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안수했다(민 27:18-23, 신 1:38).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지도자의 임무를 인수 인계했다(신 31:14-23).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하나님이 여호수

아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에 선봉이 되게 했다. 모세에게 배운 대로 두 명의 정찰을 선발해 여리고성에 보냈다(수 2). 정탐들은 무사히 임무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 강가에서 약 3일간 도강 준비를 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주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진철하게 하달했다. 이스라엘 군대에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계와 2천 규빗 떨어져서 행군하도록 지시했다.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여 여호와와 기사를 기다리도록 했다(수 3:1-6).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0일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수 4:10-14). 도강을 마치자 여호수아는 강 가운데서 돌 열둘을 떼어다 후손 교육을 위해 길갈에 세웠다(수 4:1-9,19-24).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실시하고 정월 14일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굳게 닫혀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다. 맨 선

두에 두 장군을 세우고 다음 양각(羊角)나팔을 든 제사장과 법계가 따르고 맨 뒤에는 후군이 따르게 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회를 돌되 마지막에는 일제히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두 사람을 구해 준 기생 라합을 그 가족과 같이 진 밖으로 옮겨 살려 주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했으나, 예상치 않게 패배했다. 야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몰래 숨긴 것이 화근이었다. 여호수아는 야간과 그 가족을 처치했고(수 7:4, 5, 11, 16-21, 22-26), 아이성을 끝내 정복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기브온 족속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등 몇 번의 실수도 했다.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8년에 걸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자신은 맨 나중에 쓸모없는 에브라임 산지 담나세라를 받아, 손수 개간하여 성읍을 건설했다.

여호와와 지시에 따라 도피성을 창설하여 부지중에 오살(讎殺)한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했다(수 20:2, 3). 만년에 모든 지파를 세겜에 소집해서 고별사를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다(수 24:1-28). 여호수아의 가나안 통치 기간은 불과 15년 남짓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신실한 후

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다 110세가 되어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다(수 24:29,30).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이 오늘날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

연하게 현대 교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내일을 보는 안목과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생긴다. 여호수아 당시, 종교개혁 당시 선언했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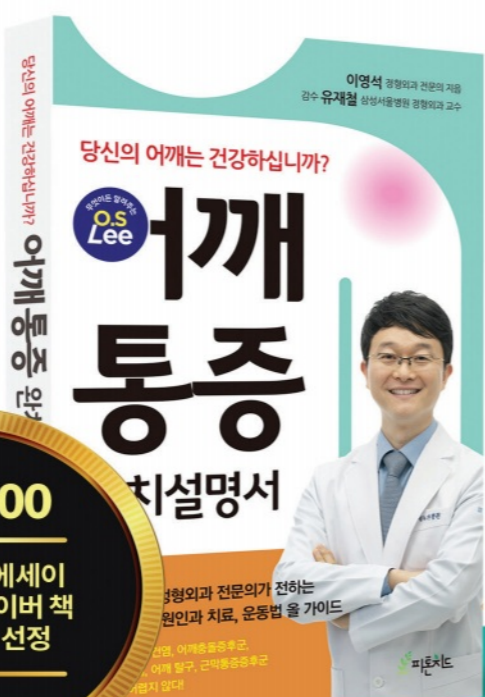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基督日報
기록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말의 권세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등 언어, 의사전달 체계를 완전하게 구사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언어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흠나게 하십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은 언어를 이용해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에 사용하려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을 정도이니까요. 인간이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 중에서 언어라는 도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힘(능력)'이 있습니다. 상황 바꾸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옛말에도 '문(文)은 무(武)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칼이 글보다 강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치이지만, 칼은 글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품위 있게도 하고, 비천하게도 합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고백하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의 아버지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 갑작스런 사형선고 앞에서 아버지가 의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차가운 말로 사무적으로 대

답했습니다. '6개월'이 말대로 그 아버지는 6개월이 되는 날 돌아가셨습니. 이 집사님이 울부짖는 것이 이것이였습니.

'그래 의학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한 번 해보자, 노력해보자'라고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단지 3음절, 6개월! 이 말을 하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말한 대로 아버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

만일 의사가 10초만 할애해서 희망을 말해주었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 희망을 따라서 노력해보다가 6개월은 더 살지

않았겠느냐는 절규였습니.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절망을 치유해주는 마음 치유사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간증했습니.

이 간증을 들으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 그런데 우리의 말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 내게 있는 생명을 다른 아에게도 나누는 것입니. 그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 위로해 주는

것입니. 이해해 주는 것입니.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 많은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습니.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찾아 '물'을 달라, '젓'을 달라고 방황하고 있습니.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 미워하는 말, 헐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 그러면 시원해야 하는데 하고나면 불편한 마음이 남습니. 왜냐하면 헐하는 안되는 말이기 때문입니. 주님도 듣는데로 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성경상식

성직자(clergy)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구약성서에 나오는 성직자는 사제뿐이었다. 이들은 전부 레위 족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과 기타 공물에 의존해 생활했다. 신약성서의 시대에는 사제 이외에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전문가로 간주 되는 랍비들이 있었다.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봉사하는 목사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도들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직책들을 선지자, 교사, 사도, 행정관, 치료사 등 여러 가지로 분류했다고 린도전서 12:27-29, 로마서 12:3-8. 그가

쓴 세 사신—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은 목회 사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는 에피스코포스(episkopos), 혹은 프레스부테로스(presbuteros), 혹은 디아코노스(diakonos)가 되기 위한 자격을 논한다. 에피스코포스는 보통 '주교'라고 번역되지만 '감독'으로도 번역된다. 프레스부테로스는 보통 '장로' 혹은 '원로'로 번역된다. 디아코노스는 보통 '부제'를 가리킨다.

성직자도 교체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고정불변인자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독신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바울이 말하는 성직자들은 대부

분 기혼자인 것으로 보인다(디모데전서 3-4). 성직자가 독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수백 년 뒤에 생겨났다. 가톨릭교회는 예수와 바울이 둘 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성직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독신이 좋다고 권장했다는 사실(고린도전서 7:1-8)에 의거 해 성직자가 독신이어야 한다는 관습을 만들었다.

성직자에게는 흔히 존칭을 붙이거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신약성서는 그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가르쳤고, 신만이 참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

이라고 말했다(마태복음 20:26-28, 23:9). 실제로 마태복음 23장은 성직자가 번드르르한 직함을 가지거나, 독특한 의상을 입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 종교상의 온갖 '갈차레'를 호되게 비난한다. 예수는 단호하게 경고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예수의 말을 감안 하면, 화려한 옷차림의 주교와 기타 성직자들을 표현한 많은 그림과 조각상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다. 프란체스코처럼 빈곤 사약을 하는 많은 수도회들은 예수의 말을 한층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들녘 출판사 제공

향유옥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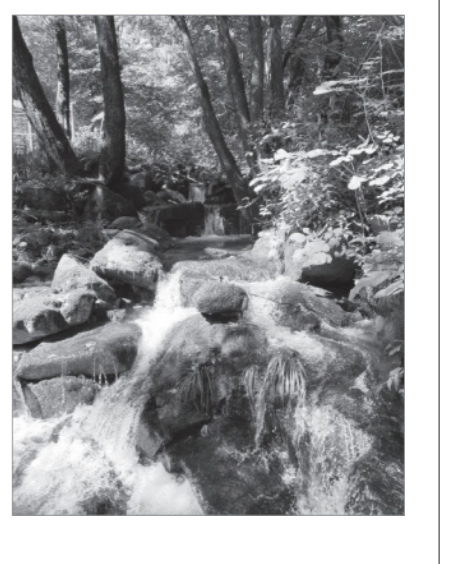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민족시인 윤동주는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의 물음"이라는 시를 썼습니.

"내일, 내일 하기에 몰렸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에 내일이더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려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



이것은 시인 윤동주가 어린 시절 몰랐던 시간과 인생에 대한 물음이며 스스로 얻은 답이었습니.

어거스틴도 시간에 대한 깊은 생각을 많이 한 기독교 사상가입니.

그 역시 아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아니하였고 삶은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일이 있었습니.

아는 참으로 당연한 말이며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은 오직 오늘 이 순간이니 이 순간을 내가 진정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영적인 사람들.

그들은 항상 오늘의 삶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삶은 내일은 없고 오늘뿐이니

오늘은 축복, 축복이라 여기며 오늘을 충만히 충만히 살아가게 됩니.

신마루서신 제공

교회오빠

프리바의 교훈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출애굽기 17:1-7

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430년 만에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 광야 40년 동안 물도 인한 고통을 세 번 겪었습니. 마라에서와 가데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프리바에 이르렀을 때였습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원

망을 하게 됩니. 본문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했습니.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태도입니. 우리도 무엇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입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잘못된 행위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 이 불신앙 때문에 원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들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기적 가운데 살아 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의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 모세를 보십시오. 그 답답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생수가 솟아 나와 갈증을 해결하였습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해결의 열쇠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 성급하게 판단하고 단정하여 오히려 불신앙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 그 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골산 봉목사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1세기 교회 예배갱신의 성경적 모델을 찾아서 1

Robert Webber는 일찍이 21세기 예배갱신의 성경적 모델로 이사야 6장의 의식예배 모델을, Judson Cornwall의 시편 100편 지성소 여정 모델을, 그리고 John Wimber의 시편 95편의 5단계 예배곡선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개의 모델을 이용해,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각 교파에 맞게 'Blended Worship'을 디자인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와 같이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영국 목사

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버의 5단계 모델도 사실은 콘월의 [Let Us Worship](1980)에서 나온 Praise & Worship의 이론을 발전시킨 Vineyard Worship(빈야드 워십)이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은 같은 성경적 예배 모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웹버의 Vineyard Worship의 공원은 모세의 성막예배, 즉 하나님의 성막 디자인의 숨은 뜻을 다윗이 자신의 장막예배(시온성 예배)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부터 재해석하여 그들의 예배갱신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Vineyard Worship에 온 교계의 관심이 솟았을 때 Wheaton College의 Robert Webber 뿐만 아니라 Barry Liesch, Donald P. Hustad 같은 복음주의 교단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예배

모델의 성경적 이론을 연구하고 검증하여 자신들의 교단의 예배갱신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Vineyard 교회나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Hillsong교회 그리고 그들이 속한 오순절 교파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예배이론을 제공한 콘월의 찬양과 경배의 점진적 진행순서에서 감사와 찬양의 단계를 사실상 생략하고 경배단계에 집중하여 콘월이 제공한 총체적 예배의 균형을 잃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Richard C. Leonard의 <Isaiah 6: A Window into Biblical Worship>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사야의 예배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성경적 모델로 우리의 예배갱신의 총체적 예배구성의 패턴을 제공하지 않으며 '다윗의 시온성 예배, 지성소에서의 경배의 부분은 이사야가 그의 성전 예배 가운데 경험한 내용에 집중한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의 요소들과 각 교파의 정통예배의 요소들이 어떻게 묶이고 연결되며 진행되는,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고 어떤 예배의 분위기와 정신과 태도로 드러지는지를 총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시온

의 예배, 즉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 본래의 총체적 예배를 알려주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예배는 지금의 정통교회들의 예배 모델의 뿌리인 이사야의 예배까지도 그의 유나버설한 예배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위대한 예배의 정점으로서 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도 구약 시편의 다윗의 성막예배를 연상시켜줍니다 -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서.

여기서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갱신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는 찬양과 경배가 이 세 개의 성경적 예배갱신의 모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가 (Praise & Worship) 21세기 교회의 가장 현대적 회중찬송과 예배형식이라면 카리스마교회의 찬양경배 음악스타일은 주로 CCM과 밴드 그리고 간단한 예배인데, 이들 교회의 부흥이 "다윗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고 "찬양과 경배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찬양과 경배가 진정한 다윗의 찬양과 경배의

웹버의 5단계 모델 John Wimber	콘월의 지성소 모델 Judson Cornwall	웹버의 의식예배 모델 Robert Webber
시편 95편	시편 100편	이사야 6장
초청 단계	성문 밖의 개인 간증	예배예의 부름
준비 단계	감사함으로 성문에 들어감	기원
높임 단계	그 궁정에 들어가 찬양	초월성 찬양 (내가 주님을 뵈었다)
경배 단계	하나님의 임재	죄의 고백(학로다 나의) 사회(너의 죄악이 사해졌다)
찬양 단계	하나님과의 교제	헌신(내가 여기 있다이다)
정리 단계	-	-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설교	설교	설교(내가 누굴 보낼꼬?)
해산	해산	성찬식

원리와 본질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콘월의 예배에 대하여 웹버와 복음주의 예배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빈야드교회의 예배 목회자들이 취한 태도처럼.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지라



김진연

우리 선교단은 2002년도부터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워십댄스를 가르쳐주는 세미나를 지금껏 계속해 오고 있다. 선교사님의 요청과 함께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는 중국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워십댄서를 훈련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안의 부르심이었다. 워십댄스 세미나의 첫 강의를 찬양과 경배에 대한 강이다. 중국에서 만나는 대상은 일반인과 신학생을 막론하고 한족, 조선족, 소수 민족 등 다른 언어와 생김새, 나이와 학력, 생활 수준, 지방색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달랐고 어떤지 자세히 알 수도 없었다. 중간중간 현지 한인 교회와도 연결되어 세미나를 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른 낯선 곳에서 워십 세미나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하며 가르치는 일이다. 그 안에서 내용 또한 깊이 있어

야 한다. 짧은 순간이지만 체면도 사치고 시간이 없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가야 했다. 언제 또 만날지, 오늘 만난 이들이 이 시간을 토대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울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지, 몸을 어떻게 움직여 찬양해야 할지 알려주는 일은 굉장한 영적 부담감을 동반했다. 내게 절실히 필요한 일은 강한 영적 리더십이었다. 특히 언어가 다르고 민족과 문화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하나님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나를 각 선교단체에서 하는 예배와 찬양학교 여러 곳을 다니며 훈련하게 하셨다. 신실한 신앙 선배를 따라 다니며 기도훈련도 받고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다. 좋은 목회자를 통해 제자와 훈련도 받았었다. 신학교도 들어갔었고, 각 영적 각성 부흥집회, 전도집회, 찬양집회에도 많이 다니게 하셨다. 주님은 그 모든 일과 오랫동안의 훈련을 통해 내게 낯선 곳에서의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셨던 것 같다. 해가 가면 갈수록 선

교현장에서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금의 선교단 사역도 예배 안에 공연과 메시지와 기도와 영적인 코이노니아 및 축적 사역으로 이끄신다. 나는 워십댄서이다. 하지만 선교단의 단장으로 팀을 이끌며 예배 인도자로, 찬양인도자로서도 서 있어야 한다. 춤이라는 한 가지만 본다면 세상의 무용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워십댄스라서 다른 것이고, 그 리더는 그래서 스스로가 예배 인도자의 마음가짐과 찬양과 경배에 대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어렵듯이 알아도 모르는 적 했고, 못

◆ 김진연 교수 1995년예향워십댄스 선교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영감 있고, 수준 있는 워십댄스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오고 있으며 예배 안에서의 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도구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예향워십을 통해 예배 안에서의 온전한 영적 회복과 효과적 복음전도를 목표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크게 달려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 찬양하여라

찬양곡 <다 찬양하여라>(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는 유명한 코랄 '다 찬양하여라'를 편곡한 것입니다. <다 찬양하여라>의 가사는 17C 독일 개혁신학의 대표적 찬송 작가인 요아힘 네안더(Joachim Neander, 1650~1680) 목사가 지었습니다. 1680년에 출간된 찬송집 <Glaub und Liebesübung>에 처음 실렸죠. 네안더는 짧은 생애 동안 6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이 찬송시는 시편 103편 1-6절과 150편을 바탕으로 지었습니다.



김명엽 원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 103:1-3)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시 150:1-2)

곡명 <LOBE DEN HERREN>은 이 시의 첫 구절 "Lobe den Herren, den mächtigen König der Ehren"에서 왔습니다. 이 곡은 독일의 옛 코프로 1665년 출간된 독일 <개편 찬송가>(Stralsund Gegangbuch)에 실렸는데, 작사자인 네안더가 자신의 시에 맞춰 멜로디를 약간 변형하였습니다. 이 곡에 붙은 화성은 1864년 영국에서 발행한 <코랄집>(The Chorale Book for England)에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All ye who hear) 외치는 대목과 '솔라시도레미' 순차 상행하는 "즐겁게 찬양하여라"(Join me in glad adoration!) 부분이 주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J.S.바흐는 이 코랄을 주제로 칸타타 57번, <그 사람은 복이 있다>(Selig ist der Mann)와 칸타타 137번, <다 찬양하여라>(Lobe der Herren)를 작곡하였고, 멘델스존은 교향칸타타 <찬양의 송가>(Lobgesang)를 작곡하였습니다.
이 코랄을 시스웰더(Todd Syswerda)가 찬양곡으로 편곡하였습니다. 김명엽 원장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김송·강원래 부부 “이혼하라” 악플에 일갈

강원래·김송 부부가 최근 “이혼하라”는 악플에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김송은 “이혼 못 시켜서 다들 안달이 났다. 우리 양가 부모님들도 가만 있는데 남들이 단편만 보고 콩 팔 내리며 정말 못 들어주겠다”며 “제가 이혼가정 출신인데 (이혼하면) 자녀에게 상처가 100% 간다. 그래서 자녀 위해서 절대 이혼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나이 52살인데 연애+결혼 35년차다. 착한 척 끊은 지 오래됐으니 남의 가정사에 제발 깔개빠하지 말라”며 “지나친 관심은 독이고 오지랖”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사랑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송은 “평범이 가장 비범이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평범하기가 어쩌나 힘든지 모른다. ‘내가 이라고 살 사람이 아닌데’부터 시작하면 상대를 탓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하며 내 기준이 잣대가 되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옥을 산다. 바뀌말하면 ‘나는 너무나 특별해!!! 스스로 나 잘났어!’ 하기 때문에 원망과 생색이 올라오고 자기연민과 상대를 향한 정죄에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라며 “제가 다 겪었던 감정들이다. 어릴적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약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내가 꼭 지켜야 할 나의 십자가는 가정



김송·강원래 부부와 아들 강선. ©SNS

중수라는 거, 내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거”라며 “극복이란 단어는 인간에게는 안 어울리는 단어다. 장담할 인생도 못 되기에 다 된 것 같아도 내일이면 또 원점이 되고, 옆치락뒤치락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나선형 모양으로 점점 올라가며 나아진다. 그렇게 부부는 살아가는 거고 부모와 자식도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범하게 하루 일상을 살아낼 때 진정한 감사도 나오게 된다. 오늘은 감사, 내일은 다툼이 반복되어도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이미 미리 감사하며 가는 거”라며 “저희 부부 어제 오늘도 평범하게 잘 살고 있으니 언니들 힘든 중에 있다면 다 같이 응원하고 위로하며 화탕한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 ‘길에서 만나다’ 개인전 진행 중

아름다운 꽃이 주는 삶의 희망

아름다운 꽃은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의 기운을 가져다준다. 붓끝으로 그림 속의 꽃 봉우리에 향기를 담고, 우아한 자태의 사실적 묘사로 마음속의 고요를 전달하는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 그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가운갤러리에서 ‘길에서 만나다’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꽃이나 여행 중 마주치는 자연을 캔버스에 그린다. 또는 희귀한 꽃을 찾아서 느낌 감정을 스케치와 채색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작품화하여 늘 가까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꽃그림이 제작된다.

작품명 ‘동광할매’는 강원도 정선지역에 발견한 할미꽃으로 바위틈에서 거친 바람과 비를 맞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감정이 올라왔다. 감동적인 삶에 보상이라도 하듯 생생한 꽃의 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봄이 작품은 집 마당에 핀 양귀비꽃의 가장 예쁜 순간을 포착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다 각각 각색의 표정이 얹혀졌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랑의 눈빛은 빨간색 꽃잎에서 찾았다.

‘어신’ 작품은 독특하다. 여자의 몸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오롯이 그리고자 했다. 상체의 젊은 여성 모습과 하체의 중년 여성 몸을 그려 시간이 흐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신명숙 작가. ©주최 측 제공

르는 속도에 맞춰 변해 가는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 한다. 작품 속 여인의 모습은 자신이 될 수 있고, 살면서 만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순간들을 정지시켜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꽃 형상들은 사람들 삶을 빚낸 진지한 이야기들로 모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길에서 만나다’를 펼치고 있는 신명숙 작가는 “아름다운 꽃무리를 보며 생성되는 활력은 대단하다. 꽃을 만나고 생기는 좋은 감정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마음과 일상에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그림을 만들었다. 꽃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고유의 매력을 알아가는 힐링을 그림으로 녹여 관객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작품 ‘동광할매’ ©주최 측 제공



작품 ‘봄이’ ©주최 측 제공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00 성지가 좋다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담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명설교회 새벽기도회 40 만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용 목사(영광제일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터 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말씀의 능력(전태식)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채널지 더 월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원 목사(수영로교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 열왕기서 18장	0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Miracle Moment	50 힐링송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하소서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툰 30 성지가 좋다
	10:00	0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어기에	0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30 말씀의 생터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성서 700 도시여행 40 CBS뉴스	00 내 삶의 행복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오후	11:00	40 말씀노트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0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00 모두의 거실 50 살롱 썰롱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00 TV강단 인천제일(이재일) 30 TV강단 포이애마예수(신우인)	20 말씀의 창 - 온정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15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신앙예배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30 오해수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박신중 목사(말바인온누리교회)	00 울포원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스페셜 로드기행 이경의 건너보면 30 러브미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힘 광석(김동찬) 30 CBS 아카데미 숲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어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분영 30 TV강단 용인송진(권준호)	00 힐링테크 회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안성복 목사(세린교회)	00 말씀의 생터 충만교회 임다윗 목사 4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예수가 찬한 팔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중말론 특강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원 목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말씀의 생터 평택성원교회 박충권 목사 40 말씀의 생터 세계로방주교회 방재길 목사	3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40 크리스천칼럼, 일선광림(박동찬)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00	00 생명의 말씀-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Miracle Moment 4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10 매일 주와 함께	10 바울로부터 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0 파워인터뷰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 홀리씨드교회 사대현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저녁	19:00	30 사장은님은 선교사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미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이영훈목사의 말씀까지 복음을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20 글로벌 신앙예배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5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박중순 목사의 묻고 답하고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CTS 특집다큐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나의 삶 나의 노래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뉴스 (다와서 찬양해) - 온누리교회-	10 새롭게하소서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나-엘기도회	00 카일 아이들면의 지붕을 뚫는 믿음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말씀의 생터 물뫼트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병주교회)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목사님 궁궐해요	00 한소말교회 한별의 기도회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	00 하나님의 음성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신약)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모 목사 30 주일리틀일국기기도회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 4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중말론 특강	00 비전메시지 - 기쁨이있는교회 조지훈 목사 30 비전메시지 - 더글로리처치 박선관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의 생터 사랑살리는교회 라준석 목사	2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TV강단 승리(백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3:00	00 다시보는 [CTS WEEK]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reck The Roof 3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	00 모두의 거실 50 살롱 썰롱	00 만나H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50 CBS 교회소식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40 나의 십자가



"LET TIME FLY. YOU MIGHT
GET TO AN EXCEPTIONAL
PLACE."

YIQING YIN,
HAUTE COUTURE CREATO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ÉGÉRIE.

✦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 NOT MANY.